

건축문화 사랑

Vol.039 2. FEBRUARY 2013
http://gjkira.kira.or.kr

건축과 도시
사람과 자연의 경계를 넘는
소통과 공유의 장!!

건축문화 **사랑** 을 스마트폰에서도
구독하실 수 있습니다.
오른쪽 QR 코드로 접속하신 후, 상단 '건축
문화사랑' 을 클릭하시고 홈페이지에서 월별
PDF파일을 다운받으시면 구독 가능합니다.



광주 · 전남 · 전북 건축사회

News 2013.02

039호

GWANGJU INSTITUTE OF REGISTERED ARCHITECTS
광주광역시 북구 중흥동 694-10 T 062.521.0025 F 528.0026

2012년 (사)광주건축단체연합회 심포지엄



문화도시 광주건축의 현재와 미래

광주건축사회 제14대 회장선거 및 2013년도 감사선거 후보자 공고

인터뷰_사람 & issue

광주/(주)플러스 건축사사무소 조두상 건축사



인터뷰_螢窓雪案
전북/군산대학교 건축공학과 문창호 교수

시론 02

고독한 건축쟁이들의 슬픈 자화상_서재형

작품소개 03

2012년 제13회 전라북도 건축문화상 주거부문 금상_완산정담 / 은상_계룡당

특별기획 04-05

문화도시 광주건축의 현재와 미래

동양건축 06

한·중·일 비교로 보는 건축미의 원천 1부 / 동양 3국의 건축을 다시 생각해 본다_이왕기

사람 & issue 07

스케치를 통해 건축에 손 맛을 곁들이는 건축사_조두상

서양건축 08

미국건축문화 이야기 2부 / 월트 디즈니 콘서트 홀과 로스엔젤리스 대성당_장동국

螢窓雪案 09

한국의 플로팅건축 선구자 군산대학교 건축공학과_문창호

2012년 제13회 전라북도건축문화상



주거부문 / 금상_완산정담

건이 건축사사무소 장영삼 건축사



주거부문 / 은상_계룡당

(주)라인 종합건축사사무소 김남중 건축사

월트 디즈니 콘서트 홀 전경



고독한 건축쟁이들의 슬픈 자화상



서재형 건축사
건축사사무소 선
건축문화사랑 신문 / 편집인

계사년 새해에 선태사해(蟬蛻蛇解)라는 고사성어가 유난히 눈이 띈다. '매미가 껍질을 벗고, 뱀이 허물을 벗는다'는 뜻이다. 뱀의 해를 맞아 이 고사성어가 회자되는 것도 사실이지만, 유독 마음에 와 닿는 이유는 '도태되지 않고 꾸준히 성장하기 위해서는 고통을 감내하면서라도 스스로 변화하고 혁신해야 한다는 것이 우리의 현실과 맞아 떨어지기 때문이다.'

“말하지 말아야 함에도 말하는 것은 죄가 작지만, 말해야 함에도 말하지 않은 것은 그 죄가 크다. <未可以言而言者 基罪小, 可以言而不言自 基罪大>”

- 정조

2012년 10월 26일을 기억하는가? 광주광역시에 소재한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대한민국건축사대회가 열렸던 날이다. 일각에서는 '외형에 치중한 소비성행사였다'라는 비판도 있었지만, '건축사들의 단합된 힘과 위상을 보여 준 대회였다'는 것이 주최 측의 자평이었다. 반하여 2013년 1월 2일을 기억하는가? '(주)공간종합건축사사무소'가 최종 부도를 맞았던 날이다. 화려했던 '2012대한민국건축사대회'의 여운이 채 가시기도 전인 새해 벽두에 날아든 비보였다. 건축계에서 '공간건축'이 갖는 의미가 남다르기 때문에 매우 충격적인 소식이었다.

그러던 중에도 대통령선거는 지역과 세대 및 이념의 대결구도 속에서 치러졌고, 꾸밈없이 대중과 소통하고자 했던 사이의 강남스타일은 여전히 지구촌을 열광시켰다. 그리고 시시각각 쏟아지는 크고 작은 뉴스들에 의해 건축사들의 외침과 안타까움은 쉽사리 파문혀버렸다.

그렇게 맞이한 계사년 새해에 선태사해(蟬蛻蛇解)라는 고사성어가 유난히 눈이 띈다. '매미가 껍질을 벗고, 뱀이 허물을 벗는다'는 뜻이다. 뱀의 해를 맞아 이 고사성어가 회자되는 것도 사실이지만, 유독 마음에 와 닿는 이유는 '도태되지 않고 꾸준히 성장하기 위해서는 고통을 감내하면서라도 스스로 변화하고 혁신해야 한다'는 것이 우리의 현실과 맞아 떨어지기 때문이다.

그동안 우리는 우리가 처한 여러 가지 문제의 원인을 주로 외부적 요인에서 찾는 경향이 적지 않았다. 건축문화에 대한 사회적 저평가, 불합리한 각종 제도와 발주방식, 건설 중심의 정책으로 인한 설계시장의 종속, 수급 불균형과 저가설계비 등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를 높이는데 주력했다는 것이다. 반면에 우리 스스로의 문제에 대해서는 지나치게 관대했던 점도 없지 않았다. 변화와 혁신을 도모하는 일에는 상대적으로 등한시하지 않았으나 스스로 반성해 보자는 것이다.

소크라테스인가? 돼지인가?

대부분의 건축사들은 자기반성과 함께 변화와 혁신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다. 때로는 덤핑수주와 불공정거래 등으로 시장질서를 문란하게하거나 사회적 책무와 도덕성을 망각한 건축사에 대해 핏대를 세우며 비난하기도 한다. 그러나 건축사 1인당 한해 평균 2.5건의 설계수주, 1만여 곳 중 70%~80%가 1건의 수주도 못받는 현실에 맞닥뜨리면 적잖이 굴복하고 마는 것도 사실이다. '한 번쯤은 괜찮겠지', '먹고 살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어'라며, 제각각 자기합리화의 이유를 내세워서 말이다.

즉, 내가 하는 사랑은 로맨스고 남이 하는 사랑은 불륜이라는 식이다. 그러나 그러한 우리 자신들의 모습이 어

떻게 비춰지는지 살펴보자. 배고픈 소크라테스의 모습인가? 살찌고 배부른 돼지의 모습인가?

그리스의 철학자 디오게네스는 사람으로 가득 찬 목욕탕을 나서며, "돼지들은 많은데 사람은 없다"라는 말을 남겼다. 디오게네스의 말처럼 돼지는 많고 사람은 없는 세상은 예나 지금이나 비슷하다. 대표적인 예가 항상 되풀이되는 고위공직자 후보들의 추악한 비리로 얼룩진 인사청문회다. 어쩌면 병역기피, 부동산투기, 세금탈루, 위장전입 따위는 마치 고위공직자가 되기 위한 필수조건처럼 되어버렸다. 결국, 탈법 및 편법과 비윤리적 행위에 능숙한 자가 능력자로 인정받고 부를 축적할 수 있다는 인식이 보편화되어버린 듯하다. 건축문화를 선도하는 전문가라고 자처하는 건축사도 예외는 아니며, 그 결과로 준법정신과 사명감이 뚜렷한 선량한 건축사들이 무능력자로 치부되거나 사회적 또는 경제적으로 피해를 입는 경우가 적지 않다.

행동하는 욕심과 행동하지 않는 양심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리를 저지르거나 동조 또는 비호하는 세력들의 목소리가 오히려 높은 것이 현실이다. 욕심은 기득권과 사적인 이익을 위해 서슴없이 행동하지만, 양심은 고귀한 척 쉽사리 행동하지 않기 때문이다. 결국, '건축사현장'과 '2012대한민국건축사대회 건축비전 선언문'은 공허한 구호에 지나지 않았다. 그러나 잊지 말자. 행동하지 않는 양심은 적의 편이라는 것을. 정의와 상식이 지배하는 사회, 도덕과 윤리가 바로서는 사회는 행동하는 양심에 의해 이룩된다는 것을.

대한건축사협회와 다수의 시도건축사회에서 선거가 한창이다. 선거에 대한 관심과 참여는 행동하는 양심의 기본이다. 지금과 같은 위기와 반목의 시대를 이끌어 갈 리더는 선량한 회원들의 고충을 이해할 수 있어야 하며, 상처는 사랑으로 보듬고 아우를 수 있어야 한다. 또한 자신부터 떼땃해야하고, 희생과 봉사의 각오도 남달라야 한다. 그리고 한편으론 악의적이거나 반복적인 폐해를 척결하는 지혜와 용기도 필요하다. 그렇게 구성된 협회를 중심으로 우리 스스로 선태사해의 길을 가야 한다. 구태와 허물을 벗지 않는다면 건축사의 품위보전 및 권익증진은커녕 동반몰락의 위기를 자초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부끄럽지만, <건축문화사랑>의 역할과 활용에 대한 자성도 해보았다. <홍재전서(弘齋全書)>에 의하면, 개혁정치를 펼쳤던 정조대왕은 "말하지 말아야 함에도 말하는 것은 죄가 작지만, 말해야 함에도 말하지 않은 것은 그 죄가 크다 <未可以言而言者 基罪小, 可以言而不言自 基罪大>"라고 했다고 한다. 이보다 더 뼈아픈 질책이 어디 또 있을 것인가? ☞

대한건축사협회 광주광역시건축사회 제26회 정기총회 개최

제14대 회장 및 2013년도 감사 선출 등 안건 상정



개최일시 : 2013. 3. 8 (금) 오전 10시

개최장소 : 신양파크호텔 (1층)



광주건축사회원 여러분의 많은 참석바랍니다.



2012년 제13회 전라북도 건축문화상 주거부문_금상

건이 건축사사무소 장영삼 건축사작

작 품 명 : 완산정담
대지위치 : 전북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3가 1702-2번지
건축면적 : 121.09㎡
연 면 적 : 247.98㎡
규 모 : 지하 1층, 지상 2층
용 도 : 단독주택

완산정담

1. 배치계획 및 평면계획

동시에 시작된 프로젝트로써 상호간 사이에 있는 인도를 공간속으로 흡입시켜 쌍둥이 빌딩으로 설계하였다.
평면계획은 현대주거공간에 충실하고자 필요없는 부분은 과감히 없앴으로써 주거공간을 극대화 시키고자 노력하였다.

2. 입면계획

입면계획은 서부신시가지의 기존 원룸의 형태를 탈피하여 특성화된 디자인으로 계획하였으며 모더니즘을 도입하여 메스로 이루어진 퍼즐형태를 갖추었다.

3. 단면계획

대로변 코너에 있는 대지에 맞추어 기준층을 3.0M로 설계하여 입면형태에 순응하는 높이를 선정하여 설계하였다.

4. 작가의 주장

계획설계부터 건축주와 많은 대화를 나누며 기존의 다가구주택을 탈피하여 새로운 디자인과 공간구성을 만들자는데 공감을 같이 했다.
모더니즘에 입각하여 메스를 이루도록 하였으며 벽(wall)을 설치하여 웅장함과 심플한 건물이 되도록 노력하였다. 초기에는 노출콘크리트를 사용하기로 하였으나 실시설계에서 변경되어 고벽돌로 바뀌어 많은 아쉬움이 남는 건물이 되었으나 서부 신시가지에 새로운 주택의 모델이 되었으면 하는 작은 바람을 가져본다.



주거부문_은상

(주)라인 종합건축사사무소 김남중 건축사작

작 품 명 : 계룡당
대지위치 : 전북 남원시 인월면 치암리 298-1번지
건축면적 : 136.57㎡
연 면 적 : 110.11㎡
규 모 : 지하 1층, 지상 1층
용 도 : 단독주택

작품설명

시골 고향에 부모님을 위한 주택인 계룡당은 대지가 경사지형으로 안채는 윗마당에 아랫마당에는 행랑채를 두어 농사마당으로 구성하였다. 뒤에는 산과 앞에는 냇가를 향하고 방위가 서향으로 전체적인 집은 서향의 지형을 따른다. 실내에서 개구부의 방향은 남향을 취했으며, 아버지가 가장 좋아하는 공간인 거실 앞 뒷마루에서의 전경이 정면(서향)의 큰뜰과 남향의 안산을 향하도록 배치했다.

계룡당



2012년 (사)광주건축단체연합회 심포지엄

문화도시 광주건축의 현재와 미래

- 광주광역시 주최, (사)광주건축단체연합회 주관으로 지난 2012년 12월 27일 홀리데이인 광주호텔에서 진행
- 광주 전남지역 건축 전문가 20여명 참석, 문화도시 광주의 건축문화 관계 사업 방향성 제시와 건축문화 발전을 위한 전문가들의 공감대 형성해

심포지엄 참석자

▶발제자 : 조용준 회장 / (사)광주건축단체연합회
양동현 건축사 / (주)건축사사무소 에이디그룹
남승진 교수 / 동아인재대학교 건축과
이효원 교수 / 전남대학교 건축학부

▶토론자 : 김지민 회장 / (사)대한건축학회 광주·전남지회
박익수 회장 / (사)한국건축가회 광주광역시회
심상봉 회장 / 대한건축사협회 광주광역시회
최명규 교수 / 호남대학교 건축학과
손승광 교수 / 동신대학교 건축공학과
김인호 교수 / 조선대학교 건축학과
이효원 교수 / 전남대학교 건축학과
윤대한 교수 / 광주대학교 건축학과
신정철 건축사 / (주)건축사사무소 에이디그룹
강필서 건축사 / (주)공간동인건축사사무소
박홍근 건축사 / (주)포유건축사사무소
김민국 건축사 / (주)나우엔지니어링건축사사무소
이광천 건축사 / 동신 건축사사무소
서재형 건축사 / 건축사사무소 선
강연심 건축사 / 백두 건축사사무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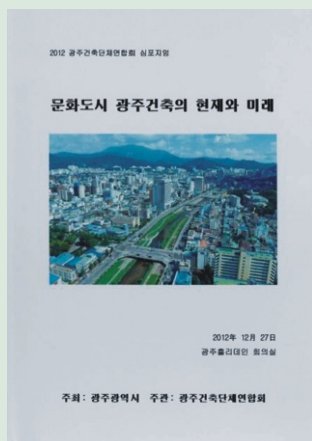
발제

▶발 제1: 광주건축의 현황과 과제
/ 조선대학교 건축학부 조용준 교수

▶발 제2: 광주 건축 · 도시문화 발전을 위한 과제
/ (주)건축사사무소 에이디그룹 양동현 건축사

▶발 제3: 도시건축의 활성화를 위한 방안
/ 동아인재대학교 건축과 남승진 교수

▶발 제4: 광주공원 시민회관 재조성 사업을 마치고
/ 전남대학교 건축학부 이효원 교수



〈문화도시 광주건축의 현재와 미래 심포지엄 녹취록 발간〉

심포지엄 토론

조용준

이제 21세기에 접어들면서 앞으로의 건축에는 많은 과제가 있습니다. 예를들자면, 인구감소나 소자녀, 고령화 사회, 1인 가족 사회 등을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 도대체 건축이 어떻게 대응할 것이며 환경변화에 따른 대응이나 상품 환경으로서의 건축은 어떻게 변화되어야 할 것인지 대한 문제가 논의되어야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도시에서 민주주의는 사라졌다’라고 합니다. 이 말은 재개발에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도심지에서는 재개발구역이 계속 지정되어가면서 도시는 대화가 없고, 가난한사람이 사는 도시나 지역, 부자가 사는 지역이 구별되면서 계층간의 갈등이 격화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가 우리 건축인에게 시사하는 바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해야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문화도시라고 하는 광주에서 건축이, 특히 설계하신 분들이 갖는 현실적인 위상입니다. 이제는 우리 스스로 행정에게 할 이야기는 없는 건지, 어떻게 하면 광주가 건축문화 도시가 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 논의를 해주셔야 할때라 생각합니다.

양동현

새해를 맞이할 시점에서 조심스럽게 몇 가지 발제를 해 봅니다. 첫째, 광주건축도시문화 역사적인 질서와 지역의 정체성을 확립해야 될 것 아니냐 하는 것과 그동안에 이 지역 교수님들과 뜻 있는 분들께서 광주의 정체성에 대해서 다양한 논제와 깊은 토론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이는 광주시민의 문화의식이 높아야 가능한 일이라 생각합니다. 따라서 문화의식을 고취하고 홍보하는 일에 건축문화인들이 함께 움직여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둘째, 지역 건축전문가그룹의 문화활동 참여를 확대하고 바른사고로 봉사할 수 있는 기회 제공과 함께 문화도시를 만들어가는 여러분야에서 교수, 건축사 및 건축전문가들의 참여와 자문 등이 좋은 광주, 문화도시 광주의 모습을 만들어가는데 중요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셋째, 사실 우리건축전문가들은 다양한 문화활동을 합니다. 이러한 문화활동을 하면서 현실적으로 직면한 문제가 예산확보입니다. 실제 문화는 돈이라고 표현하는 분도 계십니다. 주변의 다양한 사람들이 문화활동을 하면서 남을 위하고, 도시를 위한 배려를 이끌어 갑니다. 우리는 이러한 배려를 전제로 하는 문화의식을 확보하기 위한 법적인 체계화와 그에 따른 예산확보등의 문제를 논의해야 될것으로 생각합니다.

넷째, 시정 시책에 있어 건축자문단의 구성 등으로 참여기회를 넓혀 시장님 이하 지자체에 우리들의 참 건축문화 모습의 방향성을 전달하고, 그에 따른 자문적인 역할을 우리가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이효원

광주공원 시민회관 사업을 하면서 느낀 일종의 소회에 관해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먼저 첫 번째, 근대건축에 관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1970년도에 지어진 광주시민회관의 경우, 근대문화재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50년의 기간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시민회관



〈지난 2012년 12월 28일 홀리데이인 광주호텔에서 진행된 (사)광주건축도시문화재단 심포지엄〉

사업을 하면서 나가수 방식이라고 하는 것들까지 활용하면서 일종의 홍보가 되고, 히트가 되었습니다.

근대건축물이라는 것에 대해 한번쯤은 전문가 집단이 일종의 발의를 해 60~80년대 건축물들을 한번 정돈해 볼 필요가 있겠다 라는 생각이 양립동 뿐만이 아니라 다른 지역도 필요할 것으로 생각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정돈한 다음, 그것들 조직적으로 보존하고 재활용하고 하는 방법들을 어떤 관이나 개인이 아니라 전문단체가 한번 해보는 것이 어떤가하는 발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전문가 집단의 힘이라는 표현을 말하고자 합니다. 사직공원 내의 팔각정을 철거할 것인가 존치할 것인가에 대해서 투표를 한번 해볼 필요가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여기서 3분의 2 정도 합의가 봐져야 한다고 봅니다.

건축물이라고 하는 것들을 보면, 판단기준이 상당히 여유가 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오늘의 이 모임을 넘어 한번쯤 작동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면 어떻겠는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게 또 하나의 권력이 되어서는 곤란하지만, 학술적 기반을 갖고 있는 집단이라면 필요하고 또한 가능하리라 봅니다.

조용준

이효원 교수님이 이야기한 60~70년대 건축에 관련된 것들을 어떻게 보존할 것인가에 대한 조직화가 좀 필요하겠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 이 문제는 오늘 어떤 합의를 보는 것보다 수많은 이야기들을 나열해놓고 논의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만약에 이것이 문제가 된다면 우리가 시장이나 구청장에게 60~70년대 건축물의 보존에 관한 내용을 제안해야 할 것으로 생각 됩니다.

강필서

재개발과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도심지 노후화된 지역의 재개발은 아파트 위주로 토지의 대부분을 수용해서 개발하는 방향으로 진행되어져 왔습니다. 하지만 최근의 일본이나 서울에서 주민자치적으로 만들어가는 마을사례를 보면 어떨까 하는 사항이 있었습니다. 이게 만들어지는 과정부터 진짜 무언가를 목표로 하는 것들이 명쾌한 정리가 있어야 방향성을 갖고, 주민 자치적인 마을도 만들어지고, 또 거기에 더해 어떤 디자인 가이드라인 작업도 좀 되었으면 합니다. 문화재에 대한 것도 이런 것들은 보존이 됨으로써 우리의 삶이 좋아진다는 생각으로 계속 계몽이 되고 만들어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장치를 지속적으로 만들면 좀 더 좋은 예향광주가 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 건축인 각자의 말은 분야에서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 광주시민과 행정, 건축을 지망하는 학생들에게까지 비취질 때, 전문가인 우리들도 인정받고 광주 건축도 발전하리라 생각해
- 2013년은 광주 건축의 새로운 시발점, 원년으로 삼을 수 있는 전문가 및 시민참여 대토론회 개최 필요성 인식



심상봉

건축 및 도시의 정체성의 문제에 있어서는 그 도시를 사는 사람들의 의식의 문제이고, 동시에 그 도시를 만들어가는 어떤 전문가 집단의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광주가 인본디자인을 지향하는 도시의 정체성을 만들어 나가려고 한다면 그 문제에 대해서도 우리 건축단체연합회에서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제가 볼 때에 건축 전문가집단에서 가장 해 주어야 될 부분은 광주에서 행해지는 현상설계가 앞서 말한 질 낮은 현상설계 당선작이 아니고, 뭔가 좀 제도적으로 정비돼 있고, 뭔가 작품성으로 평가 될 수 있는 그러한 현상설계가 됐으면 좋겠다하는 바람을 가져 봅니다.

손승광

건축전문가들이 제대로 목소리를 내려면 제 단체를 통한 공론화 과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그렇지 못했기 때문에 비전문가 단체인 시민단체들보다 힘 있는 주장을 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조직적으로 정말로 판을 이용할지 아는 그런 활동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남승진

근대건축에 대한 활용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그걸 꼭 보존해야 된다”, “그것 철거해야 된다” 이런 것을 가지고 논의할 게 아니라, 그것을 좀 더 객관화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지난번에 후쿠오카 건축사가 오셔서 하는 이야기가 후쿠오카에도 그런 논쟁이 많았는데 최근에 와서는 그것을 지표화하고 있다고 합니다. 근대건축에 대해서, 그래서 8개의 지표 축을 가지고 객관화하는 작업을 한다고 합니다. 예를 들면 그 근대건축물이 가지는 역사성과 연대, 그 다음에 그것의 구조, 이런 것으로 해서 8개 축을 가지고 객관화시키는 작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광주도 마찬가지로 지금 전남대 천득염 교수님이 정리하신 자료들이 많기 때문에 하나부터 쭉 정리해 가면서 그것에 대한 지표를 가지고 객관성을 만들어가서, “이 건축물에 대해서는 정말 근대건축으로 인정을 해서 활용할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굳이 철거해도 무방할 것인가” 하는 것을 객관화한다면 그런 논쟁은 많이 없어질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 다음 현상설계 부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구마모토 아토폴리스에 현상설계하는 과정을 광주도 적용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결국은 공개 심사입니다. 그래서 공개 심사장에 들어오고 싶어 하는 사람들을 전국적으로 신청을 받아 200명이면 200명, 300명이면 300명이 올 수 있게끔 그렇게 제한을 두고, 공개 심사하는 방법. 물론 심사위원 다섯 분이나 열 분에서 결정을 하지만 거기에 모두 공개 심사장에 들어올 수 있는 사람들이 그것을 객관적으로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방법들이 조금 더 구체적이고 심도 있게 논의되어야 되고, 행정에서도 이러한 구마모토아토폴리스 심사방법을 적용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제는 광주의 건축문화 내지는 건축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했을 때 10여년 가까운 역사를 가진 우리 건축단체연합회가 큰 힘을 발휘할 수 있도록 서로 공동체의식을 가지고 힘을 모으면 좋겠습니다.

김인호

제가 한 말씀드리는 내용이 건축발전에 밑바탕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가장 반성해야 될 부분이 설계비가 너무 비현실화 되어 있지 않은 실정입니다.

그러면서 건축학 5년제를 졸업한 학생들의 취업을 시키려고 보니 다른 분야에 비해서 현저하게 임금이 낮습니다. 그러다보니 사회적으로 건축사란 직업이 좋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결국 그런 환경은 우리가 조성해야 하며 우리가 만들어야 합니다. 이런 현실에서는 백날 학생들한테 좋은 건축 이야기 해봐야 밖에 나가서 못합니다.

저는 이 부분이 선행되지 않고는 건축발전은 요원하다고 생각합니다.

양동현

저도 학교에서 강의를 한 경험과 실제 필드에서 설계를 하면서 고민을 많이 했던 부분입니다. 이는 우리 건축전문가들이 자기만의 이익을 추구하기보다는 더 큰 설계의 가치성을 생각하여 심사숙고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서재형

지금 현재 광주는 건축단체연합회가 있고, 우리 건축사들로만 본다면 대한건축사협회가 있습니다. 제가 협회에다가 한 몇 달 전에 농림부에서 이상한 법을 만들려고 하니까 그것을 가서 좀 취제도 좀 하고, 그 다음에 협회 차원에서 좀 대항도 좀 하라고 했는데 묵묵부답입니다. 제가 봤을 때 건축단체연합회도 그렇고, 우리 건축사협회도 그렇고 어떤 목소리를 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박홍근

저는 두 가지. 진짜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이 되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이 전문집단들의 사회적 역할에 대해서 논의가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먹고 사는 문제도 이야기가 나왔고, 또 사회적 역할에 대해서도 분명히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꼭지들을 정말 세분화해서 좀 구체화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지속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조직과 예산이 확보되어야 하고, 또한 행정적인 뒷받침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 가지만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우리 전문가들의 역할의 문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공유하지 않으면 절대 같이 갈 수 없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신정철

저는 건축단체연합회가 있었기 때문에 건축문화에 대한 가치와 방향, 건축전반의 인식 등을 봤을 때 상당한 역할을 해왔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를 계기로 우리가 시에 건축정책, 1년 동안 건축문화 전반에 관한 정책들에 대한 평가회를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그 평가회에 대한 내용을 언론이나 시에 내놓고 평가를 하는 것 입니다.

행정전반에 걸쳐 진행된 건축문화예술사업 등의 건축 전반에 관한 그런 사업들을 우리가 모니터링을 해서 시민들과 함께 평가를 하고, 그런 정책들을 새롭게 접근을 했으면 합니다. 그래서 시가 시민과 건축단체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게 하고 우리의 정책들이 좀 전달이 될 수 있도록 그런 역할들을 앞으로 우리 단체연합회에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김지민

내년부터는 광주 건축이 새로운 시발점, 원년으로 삼을 수 있는 대토론회를 개최했으면 합니다.

오늘 나온 다양한 문제점을 제시해 던져주고 또 거기에서 정리할 수 있는 그런 큰 모임을 단체연합회 주최로 해서 추진해 보았으면 합니다.

그래서 2013년도를 광주 건축의 새로운 어떤 시발점 원년으로 삼을 수 있는 어떤 그런 기회를 꼭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단체연합회장이 주최가 되 가지고 어떤 새로운 종합계획이라고 그럴까요? 어떤 시스템 하에서 그 프로세스를 움직여야 됩니다. 그때그때 만나서 얘기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것 같습니다. 꼭 제안하고 싶습니다.

박익수

결국 이러한 문제들은 들여다보면 우리의 문제성에서 비롯됩니다. 우리 스스로가 갖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이게 잘 되지 않을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최저가 입찰이나 저가 설계비라든가 다 어디서 연유합니까? 전부 우리 스스로의 문제들이지요. 지금 여기 계신 분들 말고 우리는 건축인은 굉장히 많은 다양한 분들이 계시지요. 이분들을 다 포함해서 우리가 어떻게 갈 것인가에 대한 생각들을 분명히 해야 될 겁니다.

그렇다 보면 건축인의 대합의, 대토론, 대광주건축인의 대선언을 한 번하고, 우리가 어떤 합의를 통해서 다시는 저가 설계를 하지 말자. 이런 어떤 사회적인 목소리를 높이고, 우리 스스로 자성하고 거기에 모두 합의를 하고 이게 정말 필요합니다.

이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변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몇 몇 사람들만 양심적으로 지켜서 설계비를 제대로 받으려고 하는데 나머지 대부분들이 그렇지 않는다면 그건 지켜질 수 없습니다.

저는 이러한 대합의를 통해, 광주건축인의 대선언을 통해 사회에 알리고 우리 스스로 떳떳하게 그렇게 나가자라고 가슴을 열면 훨씬 더 나은 하나의 원년으로써 시작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최명규

오늘 자리가 현재와 미래, 우리 건축의 현재와 미래에 대한 얘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오늘은 2012년이 이제 거의 끝나가는 시점이고, 오늘 해야 될 얘기, 저희가 반성을 해야 되지 않게는가. 우리들이 크게 반성해봐야 될 것들이 굉장히 많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제는 저희가 한 목소리를 내야 될 때가 오지 않았나. 내년에는 진짜 한 목소리를 내서 우리 건축계가 달라지고 무언가 보여주는 2013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조용준

오늘 심포지엄에서 거론 된 여러 가지 사항들이 광주건축발전에 기여되도록 많은 실천방안들이 모색되었으면 합니다.

또한 건축인들의 자발적인 노력과 협조도 매우 절실하게 요구되는 바입니다.

아무쪼록 광주가 문화도시로서의 위상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 건축인 각자의 말은 분야에서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 광주시민과 행정, 건축을 지망하는 학생들에게까지 비취질 때 우리가 인정도 받고 광주 건축도 발전하리라 의심치 않습니다.

한·중·일 비교로 보는 건축미의 원천_1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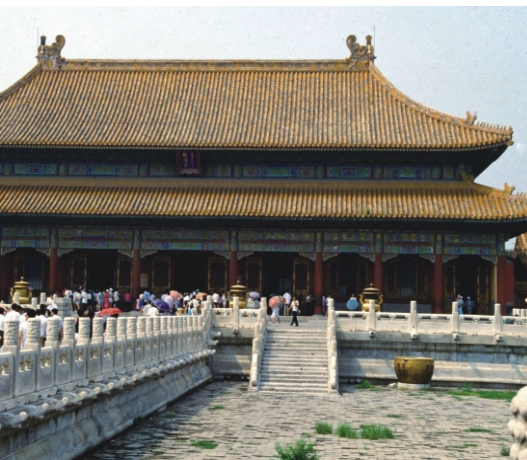
» 동양 3국의 건축을 다시 생각해 본다_크기로 보는 3국의 건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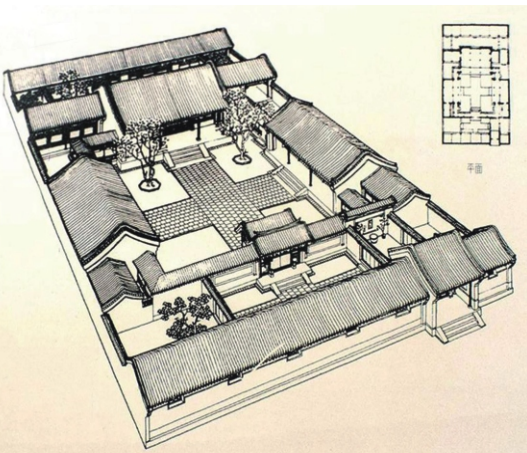
이왕기 교수
목원대학교 건축학부
건축공학전공
Leewk@mokwon.ac.kr

1부 : 동양 3국의 건축을 다시 생각해 본다. 크기로 보는 3국의 건축 - 2013년 2월

대전에 위치한 목원대학교 건축학부의 이왕기 교수는 우리나라에서 잘 알려진 건축역사학자이다. 한국을 비롯한 중국, 일본의 건축역사 까지... 동양 건축사에 대해 전문가로서 비교 분석한 내용을 본지에 연재코자 한다.



▲그림 1. 자금성의 정전인 태화전. 중국에서 가장 큰 목조건축물. 기단까지 합하면 높이가 37m이다.



▲그림 2. 중국 주택의 기본단위인 사합원



▲그림 3. 일본의 전통주택(왼쪽의 작은 집이 다실이다. 두 사람이 앉으면 딱찬다.)



▲그림 4. 나라의 동대사 대불전. 일본에서 가장 큰 목조건축물. 세계 최대 목조건축물이기도 하다.(건물 높이 47.5m)

1. 동양3국의 건축을 다시 생각해 본다.

아름다움은 무엇인가? 아름다움의 기준은 천차만별이다. 시대에 따라 지역에 따라 사람에 따라 다르다.

오랜 시간동안 한 지역을 근거로 하나의 무리가 공동체를 이루어 살아오면서 만들어진 것 중 쉽게 버리지 못한 것 중에는 크게 음식, 묘지, 그리고 집이 있다.

이 중에서 아름답다는 말이 가장 잘 어울리는 것은 건축일 것이다. 음식은 맛과 건강을 위하여, 묘지는 선조를 기리기와 기억하기 위하여, 집은 살기 위하여 만든다. 이 세 가지는 변화의 속도가 매우 느리다. 그러나 그 중에서 변화가 빠르다고 하면 집일 것이다.

요즘에는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과거에는 집이 변하는 속도가 느렸다. 그런 가운데 집은 오랜 시간을 거치면서 지속적으로 아름다움을 추구해 왔다. 아름답다고 생각하는 범위는 극히 한정적이다. 집을 배치하는 데서부터 작은 장식에 이르기까지 다양하지만 그것은 그 무리들이 갖고 있는 생각, 전통, 풍습, 기후, 지리 등이 고려되어 표현되는 것이다.

한국, 중국, 일본의 집 모양이 다른 것은 그들의 이러한 여러 가지 조건들이 생각으로 표현되었기 때문이다.

유교를 문화적 공감대로 하는 동양 3국의 건축을 보면 '같음'도 많고, '다름'도 많다. 나무를 기본으로 기단과 몸체, 지붕으로 이루어진 모양을 보면 비슷하다.

서양사람이 보면 똑같다. 세 나라 사람들이 건축의 아름다움을 말하고 있지만 가만히 들어보면 모두 자신의 건축을 기준으로 이야기한다. 우리가 중국 건축의 아름다움에 동의할 수 없다면 그들도 한국 건축의 아름다움에 동의하지 않을 것이다.

한국건축의 아름다움에 동의할 수 없다면 일본건축도 마찬가지다. 그것은 바로 아름다움의 기준이 천차만별이기 때문이다. 건축의 아름다움은 생각에 달려있다. 어떤 건축이 아름다운지는 독자가 판단하도록 하고 이제 몇 차례에 걸쳐 세 나라의 건축에 대해 이야기 해보도록 하자.

2. 크기로 보는 3국의 건축

드넓은 평원에 살아왔던 중국은 큰 것을 좋아한다. 넓은 평원에 건물을 지으려면 커야 잘 보인다. 그래서 중국인들은 인간척도를 벗어나는 규모로 만드는 사례가 많다. 대륙적 기질이 작용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면 당나라 대명궁(大明宮) 함원전(含元殿)터를 발굴했는데 기단 높이만 10미터이다. 지금 남아 있는 자금성 궁전의 정전인 태화전은 정면 60m, 측면 33m, 높이는 35m이다. 기단까지 합하면 높이가 무려 37m로 아파트 12층 높이가 된다.(그림 1) 곡부의 공자묘 대성전은 정면 54m, 측면 34m에 높이는 본체만 24.3m 기단까지 합치면 무려 32m나 된다. 이것도 아파트 11층 높이가 된다.

중국인들은 자존심이 강하다고 한다. 남과 비교해서 작으면 불쾌한 생각이 든다. 무엇이든 '천하제일'이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다. 중국의 주택은 기본적으로 4동을 배치한다.

즉 가운데 마당을 두고 사방에 하나씩 건물을 세우는 데 흔히 사합원(四合院)이라고 한다.

이 사합원이 주거의 기본단위이다.(그림 2) 중국인들은 작은 것에 대한 불만족이 있는 것 같다. 그래서 큰 것이 좋고, 아름답다고 생각한 것이 아닐까?

일본은 두 가지 측면이 공존하고 있다. 즉 엄청나게 큰 것과 엄청나게 작은 것이 일본의 건축에 있다는 것이다. 대체적으로 일본인들은 작은 것을 좋아한다. 작은 전자

제품을 만들어 한때 세계시장을 주름잡던 시기가 있었다. 일본 친구집을 가보면 정말로 작다. 살만 한데도 집은 작다.

일본의 국민성이라고 한다. 축소된 물건 안에 세상의 모든 것을 축약하여 담는다. 그렇게 작은 것이지만 인간이 세상을 느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이세상에 인간이 생활할 수 있는 집 중에서 화장실 빼고 가장 작은 집은 아마 일본 다실일 것이다. 딱 두 사람이 앉고 가운데 아주 작은 찻상만 놓으면 딱 찬다.(그림 3) 일본에는 아주 작은 집 중에서 뱃사공의 집도 있다. 이 집은 그저 문 두폭 크기이다. 이곳에서 거주를 한다. 이런 습성을 지닌 일본인이다. 그러니까 다른 나라에 없는 캡슐호텔이 망하지 않고 영업을 할 수 있지 않을까?

하지만 이런 선입견으로 일본을 보면 오해다. 일본에는 세계 최대의 목조건축이 있다. 나라의 동대사 대불전이다. 건물 높이가 47.5m나 된다.(그림 4) 화재로 다시 짓기 전에는 크기가 이보다 2배나 되었다고 하니 그야말로 엄청나다. 그런데 작을 것을 좋아 하는 일본사람들이 왜 이렇게 큰 건물을 지었을까? 작은 것을 좋아한다는 일본과는 거리가 멀다.

일본사람 개인은 '일본'이라는 커다란 기계의 부품과도 같은 존재다. 일본이라는 잘 사는 나라에 비해 일본사람은 잘사는 것 같지 않다. 철저히 개인은 국가를 위해 희생을 해야 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

무사계급에 의한 봉건사회에서 오랫동안 지배하면서 만들어진 국민성이 아닐까 생각된다. 동대사 대불전과 같은 거대한 건축물이 만들어질 수 있었던 것은 일본인이 만든 사회조직의 결정체이며, 아주 작은 다실과 공존하고 있는 나라가 또한 일본이다.

한국에는 거대한 건물도, 아주 작은 다실도 없다. 한국에서 가장 큰 건물이라야 경복궁 근정전이나 경희루 정도일 것이다.(그림 5) 이 건물을 보고 크다고 감탄을 하지는 않는다. 그렇다면 한국에는 왜 중국이나 일본처럼 거대한 건물이 없을까?, 일본처럼 다실이나 뱃사공의 집 같은 작은 것이 없을까?

한국사람이 거주하는 가장 작은 집은 아마 초가삼간일 것이다. 최소한 안방, 사랑방, 부엌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아무리 작은 집이라도 3칸 정도는 되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한국 사람들은 지독히 현실적이다.

아무리 큰 살림집을 지어도 중국의 큰 살림집이나 일본의 큰 살림집에는 비할 바가 못된다. 집을 만들되 남에게 과시하려는 거대한 건축도, 살기 불편한 작은 집도 만들지 않는다. 그 근처에는 인간에 대한 애정이 있지 않았을까? 인간에 대한 애정을 건축적으로 표현하면 '인간척도'가 아닐까?



▲그림 5. 한국에서 가장 큰 목조건축물인 경복궁 근정전

<다음호에 계속 됩니다.>

“건축사는 자신만의 건축언어를 구사할 수 있어야...”

스케치를 통해 건축에 손 맛을 곁들이는 조두상 건축사

각 지방마다 초야에 묻혀 사는 건축의 대가들이 많은데, 광주만 해도 지역 내 보다 지역 외로 이름난 다수의 건축사들이 묵묵히 활동하고 있다. 그들 중 (주)프러스 건축사사무소 조두상 건축사는 고 김수근 선생, 류춘수 건축사, 류연창 건축사 등 대한민국에서 내로라하는 건축인들에게 직접 사사를 받으며, 다수의 유명 건축 프로젝트 참여로 화려한 건축 이력과 실력을 쌓아왔다. 특히 그는 스케치의 대가로도 잘 알려져 있으며, 공간건축시절에 ‘샤프 조’라는 별명이 붙을 정도로 정밀함과 세밀함도 갖추고 있다. 제2차 광주폴리의 협업작가로도 선임된 그가 앞으로 어떤 작품을 남길지 많은 관계자들이 주목하고 있다.

다음은 지난 2월 6일 진행된 조두상 건축사와의 인터뷰 내용이다.

건축사로서의 걸어오신 길...

미션스쿨에 다니던 학창시절 단짝 삼총사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의과대학에 진학하자고 약속하였으나 막상 대학 진학을 눈앞에 두고 두 친구는 의과대학에 입학했으나 저는 의과대학을 포기하고 건축과를 가게 되었습니다. 원래 공부하기를 좋아했던 저는 대학원에 진학해서 교수가 되리라 생각했습니다. 졸업을 앞두고 설계를 지도하시던 류연창 선생님의 소개로 류춘수 선생님을 만나 대학원을 포기하고 김수근의 공간에 입사하게 되었습니다. - 공간연구소시절(1982.11 ~ 1989.7 : 약 7년 정도) 류춘수 선생님을 따라 입사한 공간은 상상 그 이상이었지요. 검정색 벽돌 건물을 처음 접하던 순간이 지금도 생생합니다. 공간시절 야근은 기본이고 철야작업이 일상이었지만, 건축설계의 기본기와 건축가의 자세, 철학 등 저에게는 많은 것을 경험하게 해주었습니다. 참여했던 프로젝트는 ‘경복궁지하철 역사’, ‘남서울대공원 열대 조류관’, ‘88올림픽 수영경기장’, ‘88올림픽 체조경기장’, ‘시립보라매병원’, ‘라마다르네상스호텔’, ‘삼부토건 본사빌딩’ 등 많이 있습니다. - 류 건축시절(1989.9 ~ 1995.9 : 약 6년 정도) 공간에서의 경험을 토대로 옛 은사인 류연창 선생님을 만나 광주에서의 건축작업이 시작되었는데 교육연구시설이 주종을 이루었습니다.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류연창 선생님과 건축에 대한 많은 얘기를 나눌 수 있었습니다. 또한 지인들과 ‘건축을 위한 건축’모임을 만들어 건축에 대한 열정을 키워나가게 됩니다. - 프러스건축(1995.11.11. ~ 현재 : 약 17년 정도) 일에 몰두하다보니 어느덧 30대 후반이 되었고 1995년 11월 11일(우연히 공간 창립일과 일치)에 4명의 스텝과 함께 프러스 건축을 오픈하게 됩니다. 저는 음양의 조화를 생각해서 건축 디자인은 마이너스 건축, 상호는 프러스 건축으로 정하게 되었습니다. 상무고등학교 현상설계 당선을 시작으로 교육연구시설을 비롯하여 현재까지 다양한 프로젝트를 접하고 있습니다. 사무실이 어느 정도 안정이 되면서 그동안 못했던 대학원에도 진학하게 되었고 현재까지도 대학에 출강하며 학생들을 지도하고 있습니다.

건축철학에 대해...

건축철학이라 하면 굉장히 거창하게 해석 될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사는 사회 환경에 해가 되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무척 어려운 얘기지만 건축사 스스로 부끄럼이 없어야 되고 자신만의 건축언어를 구사하며 또한 사회적으로는 자신의 이미지를 지켜나가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건축사로서 자랑스러운 때와 부끄러운 때가 있다면

프로젝트에 관한 애착과 관계가 있지요. 이것은 건축사 혼자만이 아니라 건축주와의 관계설정에 있어서 믿음과 신뢰가 바탕이 된다고 봅니다. 프로젝트에 대한 애착은 건축사로서 하여금 보다 더 열심히 디자인을 하도록 강요하게 합니다. 건축물이 완성되고 모습을 드러냈을 때 저 자신이 주관적으로 만족했을 때 희열을 느낍니다. 그 반대가 되면 안 되겠지요.

가장 존경하는 건축사가 있다면?

건축을 위해 열심히 활동하시는 선,후배 건축사들 모두 존경합니다. 특히 저를 지도해주신 류연창 선생님, 공간 시절에 건축디자인과 철학을 일깨워주신 김수근 선생님을 비롯하여 스케치를 사사하신 류춘수 선생님, 열정적으로 작업하시다 작고하신 장세양 선생님 등 저를 이끌어 주신 많은 분들 모두를 존경합니다.

잊지 못할 에피소드

사무실 오픈한지 얼마 되지 않아 시골에 clinic 설계를 하게 되었습니다. 젊은 의사였는데 건축주 하는 말이 “소장님께 모든 것을 맡기겠습니다”, “소장님 하라는 대로 그대로 하겠습니다”였습니다. 규모는 크지 않았지만 굉장히 애착이 갖고 고무되었지요. 정말 건축주말대로 제 디자인을 끝까지 실천한 case입니다. “평생에 이런 건축주 5명만 만나면 대가가 된다”는 말이 생각나더군요.

선, 후배 건축사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건축 설계 디자인 전문가로서의 최소한 pride를 잃지 않았으면 합니다. 이것은 건축사로서 사회와의 관계 속에서 활동하는 모든 의미들을 포함한다고 봅니다. 우리 스스로가 건축사의 존재가치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건축의 기본을 잃지 않는 끊임없는 노력과 사회에 대한 기여가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것만이 미래의 건축후배들에게 건축에 대한 밝은 환경과 여건을 만들어 주는 계기가 된다고 봅니다.

앞으로의 계획

항상 어려운 여건 속에서 최선을 다해 노력해 왔습니다. 건축 프로젝트는 규모에 상관없이 모든 것이 다 우리 건축사들에게는 소중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쌓아온 건축에 대한 생각들을 가지고 사회가 저를 필요로 하는 곳에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끝으로 ‘건축문화사랑’을 위해 수고하시는 서재형 편집장을 비롯한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취재 · 정리 : 서재형 편집인, 곽승국 전담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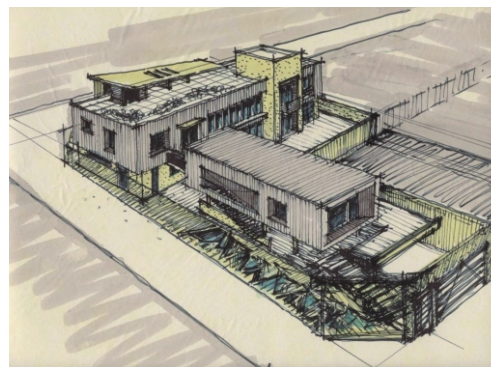
광주/(주)프러스 건축사사무소 조두상 건축사



▲공간연구소시절 참여한88올림픽수영장(1985년)



▲광주에 사무소를 개설하고 첫현상설계 당선된작품 상무고등학교(1995년)



▲스케치 실력이 돋보이는 광주 일곡동 단독주택(2011년)

대한건축사협회 전라북도건축사회 제47회 정기총회 개최

개최일시 : 2013. 3. 18 (월) 오전 10시 (예정)

개최장소 : 전주 코아리베라 호텔 (1층)

전라북도건축사회원 여러분의 많은 참석바랍니다.



미국건축문화 이야기_ 2부

» 월트 디즈니 콘서트 홀과 로스엔젤리스 대성당



장동국 교수
조선대학교 건축학부
건축학전공(5년제)
cdass@Chosun.ac.kr

1부 : 남부캘리포니아(USC) 건축대학과 게티센터 - 2013년 1월
2부 : 월트 디즈니 콘서트 홀과 로스엔젤리스 대성당 - 2013년 2월
3부 : 솔크 생물학 연구소 - 2013년 3월 예정
4부 : 버클리환경디자인대학과 샌프란시스코 해양역사공원/박물관 - 2013년 4월 예정

2012년 여름, 미국 남서부지역을 답사하며 미국 건축 문화에 대해 보고 느낀 부분들을 담아 작성했으며, 그 감동을 함께 나누고자한다.

로스엔젤리스

인구 340만명의 ‘천사들의 도시’는 미국에서 뉴욕시 다음으로 두 번째로 큰 규모이다. 대부분의 미국도시들이 그러하듯 이곳 또한 수천년간 미국원주민들의 보금자리였다. 이곳은 18세기 이후 스페인의 점령과 멕시코 영토로 편입되는 과정을 거쳐 1847년 미국 영토가 되었다. 다른 도시들에 비해 코리아타운, 리틀제팬, 차이나타운등과 같이 아시아인들이 일찍부터 자리잡은 도시중의 하나이기도 하다. 천사들의 도시는 세계 각국의 문화가 공존하는 용광로와 같은 다문화도시의 전형이다.

물론 좋은 점만 있는 것은 아니다. 1992년 백인경찰들에 의한 흑인(로드니 킹) 구타 사건으로 촉발된 폭동으로 인해 한국교포들이 막대한 피해를 입었던 기억이 새롭다. 1998년 개봉된 ‘시티 오브 엔젤’ 영화가 생각난다. 천사(니콜라스 케이지)와 여의사(맥 라이언)의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을 지켜보면서 뜨거운 용암을 품고 일촉즉발의 긴장감이 감도는 로스엔젤리스를 연상하였던 것 같다. 단 한번만이라도 사랑하는 사람의 뜨거운 입김을 느낄 수 있다면 영원한 삶을 포기할 수 있다는 천사의 간절한 열망으로 가득한 곳이 이곳 천사들의 도시인 것 같다.

월트 디즈니 콘서트 홀

‘천사들의 도시’에는 성스러운 천사와 세속적인 도시의 양면이 공존한다. 부자와 가난한자, 보수와 혁신, 팝과 클래식 등등. 월트 디즈니가 창조한 환상의 세계인 에니메이션 영화는 천사들의 도시가 꿈꾸는 환상과 기대를 충족시켜 주기에 모자람이 없었다. 미국인 뿐만 아니라 전세계 모든이들의 피곤하고 지친 일상을 잠시나마 덜어줄 수 있었으며, 이를 통해 막대한 부를 창출하게 되었다.

미국을 여행하다 보면 방문하게 되는 명소마다 자신이 평생에 걸쳐 이룩한 물질적 자산을 사회에 기부하는 아름다운 미담을 엿듣게 된다. 이러한 기부문화가 미국을 굳건히 받쳐주는 원동력이며 이러한 문화가 지속되는 한 미국문화의 발전은 멈출 수 없음을 이해하게 된다. 시청사 근방에 위치한 월트디즈니 콘서트 홀 또한 월트 디즈니 사후 그의 부인이 5,000만 달러(560억 원)를 1987년에 기부함으로써 시작되었다. 2003년 완공되기까지 16년간 2억 4천만 달러(2,880억 원)가 소요되었다.

1988년 개최된 현상설계공모에서 유태계 미국인으로 남부 캘리포니아 건축대학 출신인 프랭크 게리의 설계안이 당선되었다. 그는 스페인 빌바오시에 건축된 빌바오 구겐하임 미술관을 설계한 건축가로 우리에게도 친숙한 이름이다. 그의 자유분방하게 타오르는 듯한 건물 디자인은 그가 학부에서 미술을 전공하고 이후 건축을 다시 시작한 경력을 반영한다. 주변의 정방형 건물들과는 매우 대조적으로 대담하게 자유로운 형태는 보는 이의 시선을 현혹하기에 부족함이 없다. 특히 무광택의 스텐리스 스틸로 마감되어 표출되는 밝은 빛은 인근의 여타 문화센터 건물들을 녹여내기에 충분하다.

그러나 최초의 현상설계안에서는 석재를 사용할 계획이었으며 형태 또한 현재 보다는 다소 정리된 모습이었다. 최초의 계획안이 협의를 통해 보완, 발전될 수 있었던 좋은 사례이다. 특히 최초의 계획안이 전면 수정되어야만 했던 가장 중요했던 이유는 콘서트 홀로써의 음향설계를 충분히 고려하지 않았었기 때문이었다. 현상설계 당선 이후 베를린 필하모니 콘서트 홀과 일본 설토리 홀 등을 면밀히 조사한 후 무대가 홀의 중앙에 자리하고 객석이 사방으로 배치된 형태로 디자인하고 음향설계자로서 토요타 박사를 새로이 선정하였다.

콘서트 홀의 천정과 벽을 북미산 미송을 사용하여 음의 반사를 고려함과 아울러 이를 완만히 굴곡된 형태로 처리함으로써 기능과 형태미의 두가지 목적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었다. 도시로 부터의 소음, 건물내 공조기와 같은 기계설비와 공기의 순환에 따른 소음을 최소화 하기 위해 다양한 방법들이 고안되었다. 건물의 자유분방한 형태를 지지해 주는 구조나 마감재처리, 기계설비등을

설계하기 위해 항공기 디자인에 사용되는 3차원 설계 소프트웨어 CATIA를 사용하였으며 이러한 프로그램이 없었다면 현재와 같은 자유로운 형태의 건물은 현실화 될 수 없었을 것이다.

프랭크 게리의 화려한 건축은 대담하다는 칭찬과 함께 주변 도시의 역사성 그리고 형태적이며 심미적인 연속성과 괴리되어 홀로 뿔내고 있다는 질타도 받고 있다. 사실 주변 건물들이 모두 그의 건축처럼 톡톡 튀기만 하다면 그 혼란스러운 풍경 때문에 쉽게 지쳐버릴 것만 같다. 그래서 배경이 되는 건물들의 수수하지만 친근하고 자연스러운 모습이 우리의 도시풍경임을 기억하게 된다.

로스엔젤리스 대성당

로스엔젤리스시의 대표적인 행정건물들과 인접해 있는 월트디즈니 콘서트 홀에서 두블럭 떨어진 곳에는 2002년 완공된 대성당(Cathedral of Our Lady of the Angels)이 천사들의 도시를 지키고 있다. 101번 고속도로를 사이에 두고 위치한 차이나 타운에서 점심을 마친 후 차를 몰아 말끔한 지하 주차장에 도착하니 주차비가 18달러나 되었다. 매우 비싼 건물이라는 것은 익히 알고는 있었지만 그 부담이 현실이 되니 피부로 체감할 수 있었다. 1996년 부지매입을 시작해서 완공되기까지 6년이 소요되었으며 1억 9천만 달러(2,280억원)가 투입되어 초 호화 성당으로 비판의 대상이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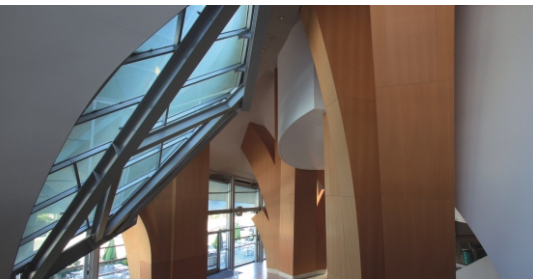
현재의 대성당은 1994년 대지진으로 심하게 손상된 성 비비아나 성당을 대체하기 위해 건축되었다. 예전 성당을 보존하면서 부족한 부분을 신축하자는 의견이 제시되었으나, 옛 건물을 지진에 충분히 견딜 수 있도록 보완하기 위해 예상되는 높은 공사비 때문에 법정 공방 끝에 결국 전면 신축이 결정되었다. 아직도 이곳을 방문하는 많은 이들은 결과적으로 예산을 훨씬 초과한 비용을 감안하면 역사적인 건물을 보수함과 동시에 새로운 성당을 부가하는 것이 도시의 연속성을 유지할 수 있는 방안이었음을 되새기고 있다.

이곳 지역 또한 흙의 색은 우리의 옅은 색조의 황토벽과 매우 흡사하다. 로스엔젤리스 대성당은 밝은 황토색 콘크리트를 사용하여 지역적 특성을 강조하면서도, 전통적인 성당이 장미 문양의 스테인드 글라스로 장식된 정면을 통해 본당 내부로 진입하는 방식을 탈피하여 좌측면으로 들어가도록 설계되었다. 그러나 본당 내부는 3,000명을 수용하는 주랑과 그 양 옆으로 배치된 측랑으로 구성된 삼랑식의 옛 성당 공간방식 그대로 설계되었다. 측랑의 콘크리트벽 사이로 들어가면 매우 높은 천정의 주랑에 기둥 하나 없는 장대한 공간을 맞이하게 된다. 높은 천정의 다양한 천창을 통해 들어오는 햇빛이 밝은 황토색 콘크리트 벽면에 비추자 본당내부가 따스하게 다가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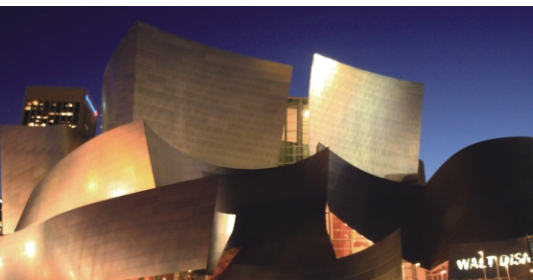
신도석 의자에 앉아 거대한 본당의 공간을 느끼고 있려니 제단 곁에 위치한 파이프 오르간이 움직이기 시작한다. 파이프 오르간 소리가 황토빛 공간과 시간을 제압하듯 휘몰아친다. 신의 공간에 울려 퍼지는 파이프 오르간의 장엄한 소리가 천사들의 도시에 평안의 휴식을 줄 수 있다면 하는 바램을 가져본다. 주랑의 양쪽 벽에 걸려있는 태피스트리에 묘사된 성인들 가운데 갓을 쓰고 도포를 두른 낯익은 얼굴이 보인다. 김대건 신부임에 틀림없다. 반갑기 그지없다.

이곳은 ‘로마의 휴일’ 영화에서 오드리 헵번과 열연한 그레고리 펙이 지하 납골당에 안치되어 있어 더욱 유명해졌다. 1,270여기의 납골을 안치할 수 있는 지하 납골당 벽면에는 한글로 쓰인 납골묘비명 또한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이곳은 도심지 한가운데 사랑하는 이의 뜨거운 입김을 한번이라도 느끼기 위해 인간이 되었던 천사들을 위한 죽음의 공간이다. 이곳 대성당을 설계한 스페인 건축가 라파엘 모네오는 세속적 욕망에 힘들어 하면서도 신의 축복을 갈망하는 인간적 몸부림을 건축으로 그려낸 것이라 여기며 발길을 돌린다.

〈다음호에 계속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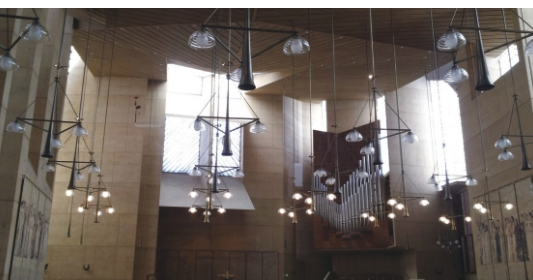
▲월트 디즈니 콘서트 홀 로비



▲월트 디즈니 콘서트 홀 야경



▲월트 디즈니 콘서트 홀 전경



▲로스엔젤리스 대성당 내부



▲로스엔젤리스 대성당 전경



▲로스엔젤리스 대성당 지하납골당



▲월트 디즈니 콘서트 홀 객석

한국의 플로팅건축(부유식 함체 위에 건설되는 모든 건축물) 선구자 군산대학교 건축공학과 문창호 교수와의 만남

전라북도 군산은 서해 바다에 근접해 있으며 충청남도 서천, 장항과는 금강을 경계로 하고 있다. 또한 도시 내에 물이 풍부한 은파유원지와 월명공원도 있고, 서해바다를 막아 형성한 새만금방조제도 있다. 군산 지역에서는 이와 같은 지리적, 지역적 영향을 받아 새로운 패러다임으로서의 건축 방식이 요구되는데 그 연구의 선구자가 전북 군산대학교 건축공학과 문창호 교수이다.

다음은 지난 1월 31일 군산대학교 교수연구실에서 진행한 문창호 교수와의 일문일답이다.



◀ 플로팅건축 특집호 / 대한건축학회지 2011년 9월호



전북 / 군산대학교 건축공학과 문창호 교수

학자로서 걸어오신 길(학업 과정/기타 사항 등)

학부과정을 마치고 대학원에 진학하여 석사과정을 다녔는데, 1979년 지도교수를 모시고 독일 차관사업으로 진행된 고려대학교병원 설계에 참여하게 되어, 독일 병원건축전문가와 작업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이 때 경험과 자료를 바탕으로 석사논문도 병원건축을 주제로 작성했고 이렇게 하여 병원건축연구에 입문하게 되었습니다. 건축사무소에 들어가 근무할 준비를 하던 중, 석사과정 지도교수인 이광노 교수님의 권유로 박사과정에 입학할 결정하면서 학문의 길로 들어서게 되었습니다. 1989년 순천대학교 교수로 임용되어 6년간 근무하며, 1992년부터 1993년까지 스웨덴 왕립공대 건축과 방문교수 기간 유럽의 50여개 병원건축을 답사를 했는데, 국내병원과 비교할 때 건축측면에서 너무나도 신선한 충격이었습니다. 1995년 군산대학교 교수로 임용되어 현재까지 근무하고 있고, 2010년 겨울부터는 국토해양부 플로팅건축연구단 단장으로 새로운 분야 연구를 시작해 지난해에는 40여년 건축 공부를 바탕으로 군산에 난재루(蘭戡樓)라는 단독주택을 신축하고, 2달 전쯤 입주해 살면서 여러 가지 성능을 실험 중에 있습니다. 종이 제 머리 못 꺾는다고 하는데 건축과 교수가 한번은 집짓고 살아보는 것도 중요한 부분이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연구 업적 또는 관심분야

1978년 석사학위 과정부터 현재까지 약 35년간 병원건축에 대한 연구를 했습니다. 스웨덴 및 영국 방문교수 후 “유럽의 병원건축”책을 출간했고, 건축사무소(범아건축, 희림건축, 무영건축, 정림건축, 원도시건축, 모람건축 등)와 병원건축 현상설계 참여 및 자문을 했습니다. 1995년부터는 동경대 학니가사와 교수의 권유로 노인주거시설에 대한 연구도 병행했고 모람건축과 노인주거시설 현상설계에도 참여, 2004년부터 2009년까지 교육과학기술부 누리사업을 통해 수해양건축에 대해 교육 및 연구를 했습니다, 2010년 말부터는 새로운 건축 분야인 플로팅건축에 대한 연구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플로팅건축에 대해...

서울에서 몇 해 전 준공되어 세간의 이목을 집중시켰던 한강의 ‘세빛둥둥섬’이 플로팅건축입니다. 건축물을 물위에 띄웠다는 점이 이색적인데 우리나라에서 전례가 별로 없기 때문에 이슈가 되기도 했습니다. 현재 플로팅건축은 유럽과 미국의 바다와 호수 등에 물과 근접한 지역에서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삼면이 바다로 되어있는 우리나라에서 플로팅건축의 무궁한 발전 가능성을 보고 있고, 특히 군산 같은 경우 지역 특성상 물과 가깝기 때문에 건축분야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할 것으로 봅니다. 가령 전라북도의 새만금사업에 따라 새만금청을 설치하게 된다면, 새만금방조제에 플로팅 방식으로 건축하는 방안을 제안하고 싶습니다. 국가 중요 기관을 플로팅 방식으로 건축한다면 확실한 이슈거리가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플로팅건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고 싶다면 플로팅건축 특집호로 발간된 “대한건축학회지 2011년 9월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억에 남을 만한 활동이 있다면...

2011년부터는 한국국제협력단(KOICA) 개발도상국 원조사업에 건축전문가로서 특히 중남미의 과테말라, 엘살바도르, 페루와 아프리카 카메룬에 보건소 및 병원시설 신축에 참여했습니다. 30여년전 외국의 차관을 받아 우리나라에 짓는 병원 프로젝트에 참여하다가, 우리나라가 외국에 원조하는 병원 프로젝트에 참여하면서 개인적으로 엄청난 자부심을 느끼고 있습니다.

학계의 비전 또는 발전방향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학문분야 특성화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국제적인 트렌드에 맞게 지구온난화에 대응하는 친환경 건축 추구해야하며 건물의 신축뿐만 아니라 재생 및 리모델링 등에 대한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대학과 산업이 협력하여 새로운 성장동력을 개발하는 방안도 중요합니다. 또한 현재 국내 건축시장이 어느 정도 한계에 왔기 때문에 건축의 다양한 분야로 해외진출이 가능하도록 연구 및 인력양성이 필요합니다. 현재 반값 등록금 등 표플리즘 때문에 대학교육의 질 저하가 우려됩니다. 아무도 대학교육의 질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고 있는 현실입니다. 선진국의 건축교육에 비하면 갈 길이 아주 멀다고 봅니다.

건축 학자로서의 철학은

한가지에만 몰두하는 외골수보다는 다양한 측면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생활을 추구해야 합니다. 건축에서도 다양한 요소가 고려되어 디자인과 엔지니어링이 균형 잡힌 건축과 주변 자연환경에 조화되는 건축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건축인 또는 제자들에게 당부 한마디...

기본에 충실한 건축을 하시기 바랍니다. 건축의 질 향상에 노력해야 합니다. 요즘 건축되는 원룸이나 도시형생활주택 등은 최소기준으로 설계되어 생활에 큰 불편함이 있습니다. 모든 측면에서 최소기준보다는 적정기준 선택하고 공공성 확보에 노력해 주셨으면 합니다. 또한 아는 것과 하는 것의 일치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건축에 대하여 알고 있는 것을 제대로 실현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 아는 것과 하는 것을 일치시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셨으면 합니다.

기타 하고 싶은 말씀...

건축은 학문의 속성상 종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현재의 건축학/건축공학으로 나뉜 교육방식은 절름발이 건축전문가를 양산하게 될 우려가 많습니다. 사회에서 요구하는 대다수의 인재는 디자인과 엔지니어링이 균형 잡힌 교육을 받은 건전한 건축전문가입니다. 우리나라의 실정을 감안하면 ‘보자르식’ 교육 보다는 ‘바우하우스식’교육이 적절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천재적인 건축가나 구조기술자가 대학교육으로 가능할까하는 의문이 듭니다.

취재 : 서재형, 양우현, 박중호, 정영범 건축사기자
정리 : 곽승국 전담기자(gjkira@empal.com)

학력

서울대학교 공과대학 건축학과 (공학사)
동 대학원 석사과정(공학석사) - 건축계획 전공
동 대학원 박사과정(공학박사) - 건축계획 전공

경력

현대건설(주), 미릉건설(주)(현 동부건설) 대리
순천대학교 공과대학 건축공학과 조교수
스웨덴 왕립공대 건축과 방문교수
벨기에 루벤대학 건축과 방문교수
일본 동경대학 공학부 건축학과 방문교수
군산대학교 공과대학 학장
대한건축학회 전북지회장
군산대학교 공과대학 건축공학과 교수(현)
플로팅건축 연구단 단장(현)
군산시 도시계획위원회 위원(현)

자격 및 면허

건축사(번호:제3012호)/1986년 취득

논문(최근)

플로팅호텔의 건축적 특징 및 경향 / 2011년도 공동학술대회논문집(2011.6)
플로팅 호텔 건축계획에 대한 사례연구 / 한국향해향만학회지(2011.9)
Sustainable Characteristics of Floating Architecture / IAPS International Symposium 2011, Daegu(2011.10)
Floating Building as a New Paradigm of Architecture / 2012 ISAA 광주(2012.10)

저서

유럽의 병원건축 / 이상건축(2000.6)
햇살이 가득한 집 완성 / 신아출판사(2007.6)
창의적 공학설계 입문 / 생각키움(2012.2)

블로그 :

http://architecture.kunsan.ac.kr/blog/mchangho/



▲한국국제협력단(KOICA)의 요청으로 “과테말라 소녀의집교육시설강화사업”에 대한종료평가를 다녀와서

광고 및
공독신청

건축문화

사랑

“건축과 도시, 사람과 자연의 경계를 넘는
소통과 공유의 장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한 적극적인 관심과 사랑을 바랍니다.

- 16면 전면광고 : 1,500,000원
- 16면 외전면광고 : 1,200,000원
- 하 단 광 고 : 500,000원
- 하단 1/2 광고 : 300,000원
- 하단 1/3 광고 : 200,000원

- 구 독 료 : 20,000원 / 1년
- 구독료 입금계좌
예 금 주: 광주건축사회
계좌번호: 신용협동조합 131-009-471898

건축문화

사랑

건축사 편집위원을 공개 모집합니다.

모집구분

/ 건축사 편집위원

모집인원

/ 광주지역 1인, 전남지역 1인, 전북지역 2인

모집기간

/ 2013. 2. 10(월) ~ 3. 22(금) 오후 6시까지

지원자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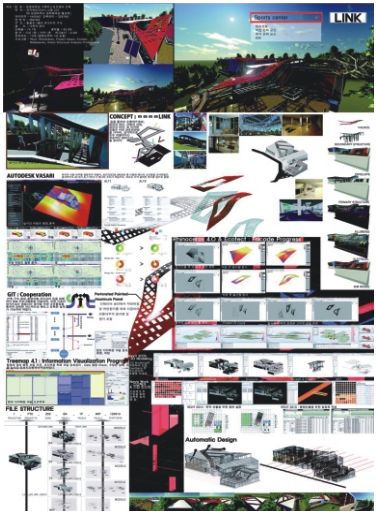
/ 해당 지역 건축사 회원 누구나 가능

지원방법 (이메일 접수)

/ 이력서 메일(gjkira@empal.com)

전송 후 전화 확인

문의 : T. 062) 521-0025~6



요즘 여러 건축학과에서는 ‘BIM(Building, Information, Modeling)’이라는 학문을 집중적으로 교육을 시키고 있다. 이로 인해 원광대학교 건축학부에서는 BIM 툴인 ‘Revit architecture’라는 프로그램을 기본적으로 가르치고 다른 서브 프로그램인 Rhino, Revit structure 등을 이용하여 학생만의 생각을 표현을 한다.

지금 많은 건축기업에서는 BIM을 많이 추구함에 따라 이걸 배우는 학생들은 많이 유리할 것으로 보인다. 원광대학교에는 재작년에 BIM을 가르치는 ‘박기우’교수님이 들어와서 활성화가 되었고 이것을 더욱 더 전진시키기 위하여 ‘BIM Award 2012’라는 공모전을 학생들이 나가게 되었다.

작년 원광대학교 건축학과에서는 총 3팀이 나가게 되었는데 그 중 한팀(권오성, 권정환, 이정민)이 대상을 차지하게 되었다.

이 세 사람이 지은 건물은 익산 신동 원광대학교 체육관 쪽에 위치한 철근 콘크리트와 철골조를 혼합한 스포츠 센터이다. 대지면적으로는 4400㎡ 건축면적은 3287㎡ 연면적은 3691㎡ 정도이고 최고 높이는 9.5M 지상 1층과 지하 1층으로 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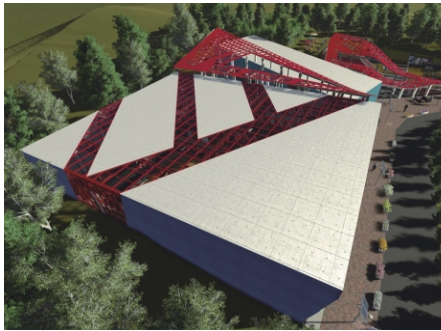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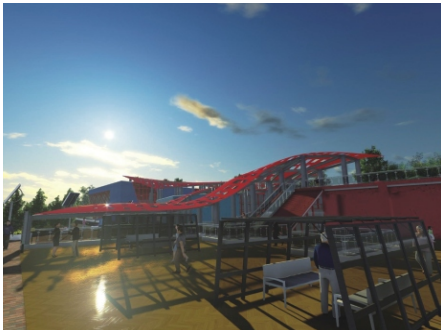
대지 설명으로 들어가 본다면 많은 학생들이 등하교시 거의 보게 되고 대학로에 사는 주택가 사람들도 그 대지 근방에 있는 시설들을 많이 이용을 하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눈길을 끌 수밖에 없다.

그리고 이 대지가 위치한 익산 신동에는 아쉽게도 여기 사람들을 위한 도서관, 체육관 등이 거의 없다. ‘학생들 그리고 신동주민들을 위하여 무언가를 만든다’라는 생각이 주된 목표 같다.

이들의 건물이 지어지게 된 사회적 배경으로 본다면 다음과 같다. 지구라는 공간에서 유한의 에너지 자원과 그를 생산하는데 발생하는 탄소로 인하여 지구는 오염되고 있다. 그래서 지금 지구에 있는 모든 건물들에 대하여 친환경에 관련된 제약들이 생겨나고 제로에너지, 저탄소 그린캠퍼스, 친환경 건축 등과 같이 지구에서 사람들이 오랫동안 살아갈 수 있도록 방법들을 제시하기 시작하고 있다. 그에 대해 지구에 도움이 되는 건축을 생각하게 될 것이다.

이들이 사용한 BIM적용 배경은 Project Vasari를 활용하여 초기 매스 작업부터 매스 형태에 따른 에너지 소모량 및 외피를 사용 여부결정을 한다. ecotect을 사용하여 외피에 채광량을 파악하고 그에 따른 외피에 타공 결정으로 채광량을 조절, Robot Structural Analysis Professional을 통하여 구조적인 문제 해결하여 구조안정성 높임, Revit을 건축, 구조, MEP를 모델링 및 물량 산출, Navisworks를 통하여 구조와 MEP(레빗 건축설비 프로그램)간의 간섭을 체크하고 마지막으로 Revit모델링 수정으로 마무리 짓는다.

이들이 상을 타게 된 것은 신선한 충격이다. 지금 건축 시장에서 유행인 BIM 공모전을 대상을 타고 이 연구실이 생겨난 지 2년 만에 이게 되었으니 말이다. 이 영광이 계속되어 이번 년도에도 발전에 발전을 거듭하길 바란다.



원광대학교공과대학 건축학과 정사희 교수 퇴임식

— 지난 1월 5일 전라북도 익산 궁 웨딩홀에서 진행



지난 1월 5일 전북 익산 궁 웨딩홀에서 원광대학교 건축학과 정사희 교수의 정년 퇴임식이 열렸다. 이날 전라북도 건축사회 이성엽 회장과 (주)길 건축사사무소 이길한 건축사를 비롯한 동료 교수 및 많은 제자 등이 참석했다.

정사희 교수는 한양대학교 건축공학과 학사 과정, 고려대학교 건축공학과 석사 과정, 전남대학교 건축공학과 박사과정을 거쳤다. 주요 저서로는 건축의 장론(출판사: 광문각), 건축개론(출판사: 도서출판 서우), 건축환경계획론(출판사: 기문당)이 있으며 본교에서는 건축계획, 건축설계, 근대건축사, 현대건축론을 가르쳤다.

겨울방학은 우리에게 한없이 길고, 짧고, 춥고, 배고프고, 막막하고, 아득하기만 하고, 새로운 다짐을 하고, 한해의 끝과 새로운 시작의 중심이다. 그리고 학생들이 방학 중 가장 많이 하는 행위중 하나가 아르바이트를 구하기 위한 전쟁이다.

학비를 벌고, 용돈을 마련하고, 하고 싶은 것, 먹고 싶은 것 등 자신에게 투자한다는 것이 나쁘지 않은 않지만 내가하고자 한 일에 대해 부족함을 느끼고 반성한다면 방학의 시간을 나를 되돌아보기 위한 시간으로 투자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 이번 방학 우리 학과에는 봄과 함께 새로운 변화의 바람이 불었다.

작년에 회장을 맡았던 선배를 중심으로 몇몇 선배들이 학과생을 대상으로 한 스터디를 제안하였고, 다수의 학과생들이 긍정적인 반응과 참여 의사를 나타내며 스터디를 위한 윤곽을 잡아가기 시작했다. 우리가 방학때 배우고자 하는 것은 주로 프로그램이다.

정규 커리큘럼 중 프로그램에 관한 수업이 미약한 것이 현실이고 일반적으로 학부생들은 독학이나 선배들을 통해 배우는 것이 대부분이다. 그러다보니 프로그램에 대한 이해가 높은 것도 아니고 표현하는데 있어서 많은 제약을 받았는데 이번 스터디는 프로그램에 대한 갈증을 해소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이다.

처음 계획은 선배가 몇 명의 후배들을 가르치면서 CAD, 간단한 3D 프로그램을 가르치는 것이었지만 교수님의 귀를 거쳐 학교에 알려지면서 지원을 받을 수 있었고... 멀티미디어를 담당하시는 이원규 교수님께서 라이노에 대해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는데 이번 학생들의 열정을 보시곤 라이노를 가르쳐 주시겠다고 흔쾌히 수락해주셨다.

이로써 우리는 한 단계 더 나아갈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할 수 있었다. 긍정적인 결과에 얼떨떨하기만 했지만 마냥 좋아 할 수만은 없다. “처음하는 스터디이기 때문에 진행이 되었구나, 우린 할 수 있다”에서 생각이 끝나면 안되고, 앞으로 진행하며 직면할 문제들을 체크하고 보완하는데 많은 심혈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이번 스터디는 학생들을 중심으로 자발적인 스터디를 하는데 큰 의미를 갖는다.

이를 계기로 장기적으로 볼 때 방학마다 이러한 스터디 모임을 어떻게 운영하고 유지 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고민하고 생각 해봐야 할 과제중 하나이다. 그리고 다들 건축학과가 우리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학과를 만든다는 것을 방학 스터디를 통해 느꼈을 것이고 이러한 정신이 이어져 나아가 더욱더 발전 했으면 좋겠다.

마지막으로 스터디를 통해 조금 아쉬웠던 부분은 교수님의 열정이 지나쳐서 많은 것을 가르치려고 하시다 보니 진도는 빠르고, 시간은 한정되어 있어 따라가는데 조금 힘들었지만 이는 차차 복습해보면서 해결하면 되는 일이고, 저학년들 같은 경우 3D프로그램을 먼저 접하다 보니 설계의 전부인 것처럼 느끼는 학생들이 많아서 아쉬웠다.

다음 스터디에는 프로그램보다는 설계에 관한 스터디를 하여 좀 더 넓게 생각하고 바라보았으면 좋겠다. 이번 겨울방학은 학부생들과 함께 할 수 있어서 어느 때보다도 훈훈하고 따듯하고 알찬 겨울 방학을 보낸 것 같다.



▲열정적으로 강의를 하시는 순천대학교 이원규 교수님

조선대학교 건축학부, ‘2013 국제건축디자인 영어 캠프’ 개최

— 지난 2월 4일부터 6일까지 3일간 ‘STORYTELLER’라는 주제로 진행



조선대학교 건축학부 건축학전공(학부장 김인호 교수)에서는 지난 2월 4일부터 6일까지 3일간 2013 국제건축디자인 영어캠프를 조선대학교에서 개최했다.

‘STORYTELLER’라는 주제로 개최된 이번 국제영어캠프는 MARTIJN CHRISTIAN(네덜란드 건축사), 김경원(영국왕립건축사), 서민범(프랑스건축사)으로 구성되어 전 과정이 영어로 진행되어 앞으로 5년제 국제인증체제하에서 학생들에게 요구되는 국제화 부분의 외국어 소통 능력을 배양하고 주제에서 요구되어지는 건축, 문화, 예술 작업을 진행했다.

조선대 건축학부장 김인호 교수는 2013년 1학기부터 2학년 설계수업과정 이 외국어 강의로 채택되어 이번 캠프는 방학중 학생들에게 다음 학기를 준비하고 능력을 배양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광주건축사회 제14대 회장선거 및 2013년도 감사선거 후보자 공고

— 회장후보자 합동토론회 오는 2월 25일 (월) 오후 2시 광주건축사회관 5층 회의실에서 개최

(광주건축사회 선거관리위원회)



회장후보
기호 1번

안길전 건축사
▶ 1956년생 / (주)일우엔지니어링
건축사사무소
▶ 학력
광주공업고등학교 졸업,
조선대학교 건축공학과 졸업
조선대학교 산업대학원 석사

- ▶경력
한국주거학회 참여 이사 역임, 남구청 건축위원 역임, 남구청 · 서구청 사전
재해영양평가 평가위원 역임, 남구청 도시계획위원, 광산구청 · 북구청 사
전재해영영평가위원, 광주극동방송 운영위원, 광주건축사회 이사 · 대의원
역임 등 다수
- ▶슬로건
경륜도 능력도 사람도 달라야 합니다. / 참여와 소통, 복지는 기본! 자긍심까
지 안길전이라면 다릅니다.
- ▶핵심공약
1. 참여의 폭이 달라집니다.(책임부회장제 도입 / 이사회 임원 증원 / 대행정기
관 합동간담회 정례화 / 회원들의 협회 업무 참여 기회 확대<각 위원회 공모
제 도입> / 대관 위원회 회원 참여 폭 확대 / 감정업무 위원회 구성 / 분야별
기술자문단 운영<구조, 설비, 전기통신 등 7개 분야> / 협회 현행 제도 개선
<디자인 자문제도, 업무대행 제도 개선>)
 2. 소통의 장이 달라집니다.(건축 민원 담당 공무원 평가제 실시 / 회장과 회원
간의 소통강화와 정기적인 만남 마련 / 신입회원 오리엔테이션 교육 실시 /
협회 홈페이지 전면개편<아이템방 설치 등> 운영 / 건축직 관계기관과 함께
하는 한마당 축제 마련 / 회원사 인력 지원 시스템 구축을 위한 인력난 해결
방안 추진)
 3. 복지의 틀이 달라집니다.(회원 복지를 위한 수익성 사업 실시 / 회원 복지기
금을 통한 회원 복지 혜택 활성화<콘도회원, 골프회원권 활용> / 연금의 효
율적 관리를 위해 수납 및 관리 개선 / 협회가 예식장 및 장례식장 등과 단체
협약을 맺어 회원 가족 이용시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추진 / 협동조합
<5인 이상>을 통한 회원사 그룹화 추진)



회장후보
기호 2번

강석훈 건축사
▶ 1960년생 / 건축사사무소 선명
▶ 학력
조선이공대, 조선대학교 졸업,
전남대학교 대학원 건축공학과
석사수료

- ▶경력
광주고등법원, 광주 · 전주 · 제주 지방법원 감정인, 광주 남구 재난사고 원
인조사분석 자문위원 역임, 광주 북구 건축분쟁조정위원 역임, 매경 기업안
전보건 경영평가 진단위원 역임 / 광주건축사회 부회장 역임, 광주건축사신
용협동조합 부이사장 역임 등 다수
- ▶슬로건
신뢰 화합 그리고 미래 / 함께 나눔, 함께 성장. 공생과 우애 정신으로 이끌
겠습니다.
- ▶핵심공약
1. 공유 생산제(회원사가 가진 지식, 정보, 인력을 공유해 시너지를 내고, 우애
적으로 일을 함께하여 안정적 공동성장)
 2. 건축사 옴브즈맨 운영(행정업무 투명성 확보와 업무조율 / 건축사 권리 침
해, 부당한 처우 대응 도시 · 건축 행정 건축사 참여)
 3. 업무대행 합리적 운영(사법부의 기피, 조정제 준용 / 회원의 권익 보호와 신
뢰 회복)
 4. 인력풀 · 책임이사제 운영(두루 고르게 참여하여 기회균등실천 / 책임과 권
한을 부여한 사업별 책임이사제)
 5. 건축사 실명제(수임업무 신고 및 업무 수행중인 건축사 권리 보호 / 건축물
에 실명 남기기)
 6. 건축사 문화 재단 설립(1세대 건축사 작품 수집보존 전시 / 시민 · 학생대상
교육 홍보)
- ▶기타
업무지원 시스템, 용역비 지급 보증제, 각종비용 현실화, 창의성 시대의 회원
눈높이 교육, 노후준비 실버연금, 부실 예방을 위해 적정 업무량 수임권고 실시



감사후보
기호 1번
정 상 채 건축사

- ▶ 1957년생 / 초석 건축사사무소
▶ 학력 : 조선대학교 건축과 졸업, 국민생활체육
광주광역시 피구연합회장 조선대학교 총동창
회 부회장 역임, 21세기 남도포럼 겸 환경분과
위원장, 법무부 범죄예방위원



감사후보
기호 2번
한 명 석 건축사

- ▶ 1965년생 / 종합건축사사무소 한맥
▶ 학력 및 경력 : 광주대학교 건축공학과 졸업,
전남공업고등학교 건축사 / 건축과 동문회 회장,
광주건축사회 교육홍보위원 역임, 광주건축사회
정책개발위원 역임, 광주건축사회 이사 역임



감사후보
기호 3번
윤 양 현 건축사

- ▶ 1967년생 / 이조 건축사사무소
▶ 학력 및 경력 : 광주대학교 건축공학과 졸업,
광주광역시 광산구 지적위원,(사)송정청년회의
소(JC) 회장 역임, 광산구(갑)국회의원 청년특보
역임

광주광역시, 건축조례 현실화 추진

－일조기준 완화, 맞벽건축 대상 확대 등 오는 3월 광주시의회에 조례안 상정계획



광주광역시가 빠르면 오는 3월부터 높이 9m 이하(평균 3층 높이)의 건축물에 대해 일조기준을 완화하고, ‘맞벽건축’ 대상 확대와 종합병원 등 다중이용건축물의 건축허가 기간을 한 달 이내로 단축하는 등 관련 제도를 대폭 개선할 예정이다.

광주시는 지난 2월초, “지방건축위원회 심의사항 기준 개선, 심의절차 규정,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 기준 개선 등의 내용을 담은 ‘건축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조례안에 따르면 시는 앞으로 문화집회시설, 종합병원 등 여러 사람이 이용하는 다중이용 건축물의 건축심의 개최시기는 심의접수일로부터 30일 내에 의무적으로 열어야 한다. 일조기준 완화로 주거지역에서 건축물을 지을 때

정북방향의 대지경계선에서 띄워야 하는 거리도 줄어든다. 현재는 건축물 높이 4m까지는 1m 이상, 8m까지는 2m 이상, 그 이상은 높이의 2분의 1 이상 이격 거리를 두도록 돼 있지만, 앞으로는 건축물 높이 9m까지는 1.5m이상으로 통일된다. 이 경우 최대 3층 규모의 건축물까지 완화된 일조기준으로 지을 수 있으며 건축물의 연면적이 늘어나는 혜택을 받게 된다.

이 외에도 두 건축물을 대지경계선에서 50m 이내로 붙여지을 수 있는 ‘맞벽건축’ 대상도 확대된다. 그동안 인접대지의 건축물과 맞벽으로 지을 수 있는 지역은 상업지역과 도시미관을 위해 조례로 정한 구역뿐이었지만, 앞으로는 건축물과 토지 소유주의 합의만 있으면 주거지역과 한옥 보존·진흥구역도 ‘맞벽건축’을 할 수 있게 된다. 광주시는 오는 3월 광주시의회에 조례안을 상정할 계획이다.

광주광역시, 광주 제2컨벤션센터 건립 순항

－공정률 47% 철골 구조물 공사 완료, 오는 5월말 개장 예정



광주광역시가 전시컨벤션산업의 대형화에 대비해 건립하고 있는 제2컨벤션센터가 오는 5월말 개장을 앞두고 공정률 47%로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

지난 4일 시에 따르면, 2012년 8월 21일 착공한 광주 제2컨벤션센터 건립공사가 지상 철골 구조물 공사를 완료하고, 공정률 47%로 벽체와 기존 구조물 연결공사를 진행중이며, 올해 4월말까지

내·외부 마감공사를 완료해 5월말 개장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광주 제2컨벤션센터는 가동률이 70%를 넘어선 김대중컨벤션센터의 부족한 회의시설과 전시시설을 확충해 전시·컨벤션 산업의 대형화 및 국제화에 대비하기 위해 추진됐다. 현 김대중컨벤션센터 부지 내에 총사업비 618억(국비 309억원, 시비 309억원)을 투입해 연면적 18,504㎡, 지하1층, 지상3층 규모로 3,000석을 수용할 수 있는 국제회의장 겸 전시장으로도 사용할 수 있는 다목적홀과 19개의 중·소회의실이 들어서게 된다.

광주 제2컨벤션센터는 지난해 2월 설계공모를 거쳐 (주)종합건축사사무소 디자인캠프문밖 디엠피(서울)에서 설계를 맡고, 7월 입찰을 통해 화성산업건설소시업이 시공사로 선정됐다.

2013광주디자인비엔날레 디자인공모전 결과 발표

－출품작 1483점 중 주제 부합된 작품 없어 우수작품 5점만 가작으로 선정

(재)광주비엔날레와 광주디자인센터가 2013광주디자인비엔날레 참여 확대와 신진 디자이너 발굴을 위해 실시한 2013광주디자인비엔날레 디자인공모전 결과 가작 5명(팀)이 수상자로 선정됐다.

이번 공모전은 2012년 11월 1일부터 2013년 1월 15일까지 실시돼 총 1483점이 접수됐다. 재단은 당초 최우수상, 우수상, 장려상을 수상할 예정이었으나 주제의 의미와 가치를 표현하는 심사기준에 부합하는 디자인이 제안되지 않아 출품작 중 디자인적으로 우수한 출품작 5점을 가작으로 공동 선정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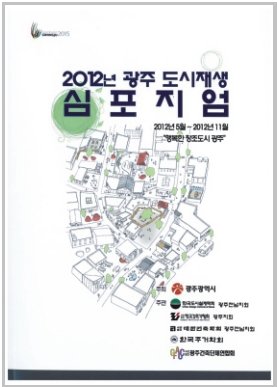
가작 수상자는 신명섭(Plux), 차세완, 박수진·조규열(큐브디자인), 이승현·윤민구(가천대학교 산업디자인학과/건국대학교 커뮤니케이션디자인학과 재학), 전병선·국민영(콤비커뮤니케이션 재직) 5명(팀)으로 이들에게는 상장과 함께 250만원의 상금이 각각 수여될 예정이다.

한편, 2013광주디자인비엔날레는 오는 9월 6일부터 11월 3일까지 66일간 광주 비엔날레 전시관 및 광주시내 일원에서 열린다.

(사)광주건축단체연합회, ‘2012년 광주 도시재생 심포지엄’ 책자 발간

－2012년도 도시재생 관련 심포지엄 자료와 도시재생 투어 자료 등 추진 사업 내용 담겨

(사)광주건축단체연합회는 지난 2월 4일, ‘2012년 광주 도시재생 심포지엄’ 책자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총 352페이지로 이루어진 책자는 건축단체연합회가 지난해 도시재생과 관련하여 진행한 공모전 및 심포지엄 등 추진한 사업 등의 정보가 담겨져 있다.



여수세계박람회 사후활용 추진위원회 설립돼

－전남건축사회 윤문곤 회장 감사에 선임, 사후활용 연계사업 유치 등 활동 펼칠 것



완료했다. 추진위에는 전남 동부권 지역 인사뿐 아니고 남해환경연합 의장과 진주YMCA 사무총장, 하동환경실천협의회 회장 등 경남서부권에서도 참여했다. 정관은 9장 44조, 부칙 4조로 제정됐다.

이들은 앞으로 박람회 주제실현 사업 및 사후활용 연계사업 유치 글로벌 선진 문화 시민의식 형성 및 성숙한 시민사회 구축, 사후활용 공공부문 시민참여 대정부활동 등을 펼칠 예정이다.

2013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주제관 ‘국제습지센터’ 개관

－연면적 9985㎡, 지하1층·지상2층 규모로 주제영상관과 에코시티관, 생태체험관 갖춰



지난달 중순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개최 100일을 앞두고 박람회 주제관 역할을 하게 되는 국제습지센터가 문을 열었다.

국제습지센터는 총 사업비 443억원을 들여 2007년 1월 착공, 지난해 12월 공사를 완료했다. 4만989㎡ 부지에 연면적 9985㎡, 지하 1층·지상 2층 규모로 주제영상관과 에코시티관, 생태체험관을 갖추고 있다.

국내 최초로 도로변과 옥상을 언덕으로 연결한 뒤 잔디를 깐 지붕건축 기법이 사용됐으며, 건물 공급 에너지의 42%를 태양광과 지열로 공급하는 에너지 절약형 건물로 지어졌다. 박람회 주제영상관은 순천만 정원의 과정과 이야기를 3D로 구성해 보여준다. 에코시티관은 순천만과 세계 정원도시들에 대한 소개와 정보를 제공하게 된다. 생태체험관은 짙뿔어, 칠게 등 순천만 갯벌 등에서 살아가는 생명체들의 모습을 살펴볼 수 있는 곳이다. 국제습지센터는 시범운영을 시작으로 박람회기간인 4월 20일부터 10월20일까지 100여명의 인력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정원박람회 관계자는 “국제습지센터는 순천만이 지구의 정원에 함께 살고 있는 모든 생물들을 위한 공존의 공간임을 체험하면서 즐기는 습지 종합관으로 조성했다”면서 “3월말까지 초화류 식재 등 마무리 공사를 완료해 성공 박람회로 이끌겠다”고 밝혔다.

전북 전주시, 해피하우스사업 확충으로 주거지 재생모델 제시

－지난해 전주시건축사회와 재능협약체결에 이어 여타지역단체, 지역기업 등과도 협약추진



전라북도 전주시는 3개 센터 사업구역 내 노후주택 23,400여 세대를 대상으로 공동주택식 관리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해피하우스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센터에서 서비스를 수행할 전문인력을 지난 1월 2일 공고를 통해 1차 서류전형과 2차 면접시험을 거쳐 해피하우스센터 전문인력 9명을 채용하기

도 했다. 지역밀착형 친서민 주거지원 정책으로써 매년 지역주민들로부터 98% 이상의 서비스 만족도의 성과를 낸 해피하우스 사업은, 시 자체사업으로 적극 추진함에 따라 다양한 서비스 확충으로 주거지 재생 모델을 제시하겠다는 의지이다. 이를 위해 센터별로 확대지역(전주시 우아1동, 전주시 서학동)의 주민대표, 시민단체, 전문가로 구성된 ‘해피하우스 운영위원회’를 구성하여 조도가 낮아 어두운 골목길 경관용 벽등(LED램프) 설치, 노후 담장 보수 및 도색 등 주민맞춤형 마을개선 희망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현재 전주시 해피하우스사업은 인후1동·인후2동·우아1동, 노송동, 완산동·동서학동·서서학동의 단독주택과 드림스타트대상 주택을 포함하여 총 23,440여 세대를 대상으로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으며, 3개 센터가 운영 중에 있다.

전북 군산시, 건축허가 사전예고제 시행

－불필요한 민원 발생을 사전에 막는 등 여러 효과 기대

전라북도 군산시는 사생활 침해 등 집단민원이 예상되는 건축물이 들어서기 전 건축계획을 예고하는 ‘건축허가 사전예고제’를 2월부터 시행했다고 밝혔다.

건축허가 사전예고제는 사생활 침해, 인접지 균열피해 발생 등 집단민원이 예상되는 건축물에 대해 건축계획을 예고해 민원을 예방하고 합리적인 건축계획을 유도하기 위한 것이다.

사전예고 대상은 ‘격리병원·장례식장·축사·쓰레기시설 등 주민기피 건축물’, ‘가스충전소·폐차장 등 위험물관련 건축물’, ‘경마장 등 사행성 관련 건축물’, ‘지하 3층 이상의 토지굴착 건축물’, ‘대형집회장·판매시설·공동주택’ 등 다중이용건축물 등이다. 시가 사전예고문을 건축예정지와 관할 행정기관 게시판에 게시하면 의견이 있는 주민은 건축과나 읍면사무소·동주민센터에 서면으로 제출하면 된다.

시는 제출된 의견을 건축관계자에게 통보하고 의견 조정이 필요하면 3차례의 조정회의를 통해 허가 여부를 결정한다. 이에 따라 불필요한 민원 발생을 사전에 막는 등 여러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광주, 전북, 전주시건축사회, 2013년 정기총회 개최

－ 전주 2월 21일 10시, 광주 3월 8일 10시, 전북 3월 18일 10시(예정)



대의원 선출의견에서 신임 회장을 선출하는데 지난 1월 23일부터 29일까지 후보자 등록공고 결과 종합건축사사무소 제3건축 전병갑 건축사가 단독 입후보하여 큰 결격사유가 없는 한 회장에 선출될 것으로 보인다.

광주건축사회는 오는 3월 8일 10시 신양파크호텔에서 총회를 개최한다. 전주시건축사회와 마찬가지로 3건의 부의안건이 상정되어 심의되며, 신임회장을 선출하는 선거가 진행될 것으로 보여 전년도보다 많은 회원들이 참석할 것으로 보인다.

전북건축사회 또한 3월 18일 10시 전주코아리베라호텔 백제홀에서 총회 개최를 예정하고 있다. 내부여건상 미확정된 상황이며, 오는 2월 19일 이후 최종 확정 공고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전남건축사회는 3월말 또는 4월 초 중 총회를 개최할 것으로 알려졌다.

News 광주 건축사회 동정

* 입회

- 고부강 건축사 / 가온 건축사사무소 / 광주시 서구 매월2로 53 11동 227호
- 최치훈 건축사 / 건축사사무소 밀월 / 광주시 동구 증심사길 30번길 13-0 3층

* 폐업

- 황대연 건축사 / 대연 건축사사무소
- ▶ (주)디케이 건축사사무소로 입소 / 광주시 서구 대남대로 469번길 10-2 2층

* 변경(소재지 변경)

- 서영배 건축사 / 문화 건축사사무소 / 광주시 북구 천변우로 197-0

* 부고

- 선재규 건축사 / (주)한길 종합건축사사무소 1월 13일 (일) / 부친상
- 은철영 건축사 / (주)건축사사무소 휴먼앤스페이스 1월 18일 (금) / 빙부상

News 전남 건축사회 동정

* 입회

- 최종화 건축사 / 예소 건축사사무소 / 전남 무안군 삼향읍 남약리 2207
- 전인천 건축사 / 다르다 건축사사무소 / 전남 목포시 하당로 30번길 14
- 양기철 건축사 / 채움 건축사사무소 / 전남 곡성군 곡성읍 읍내리 715-1

* 전입

- 김영전 건축사 / (주)영진엔지니어링 건축사사무소 / 전남 나주시 청동길 92
- 명성원 건축사 / 명가 건축사사무소 / 전남 완도군 완도읍 개포로 90

* 전출(광주광역시)

- 광승동 건축사 / (주)웅창이엔지 건축사사무소

* 부고

- 남윤홍 건축사 / 해동 건축사사무소 1월 20일(일) / 부친상
- 김울관 건축사 / 미도 건축사사무소 1월 22일(화) / 부친상

News 전북 건축사회 동정

* 입회(소재지 변경)

- 김규섭 건축사 / 토담 건축사사무소 / 전북 김제시 서암동 447-4 서암빌딩 3층
- 김성일 건축사 / 마당 건축사사무소 / 전북 정읍시 수성동 609-1
- 조상민 건축사 / 상민 건축사사무소 / 전북 익산시 남중동 76-16 3층

* 변경(소재지 변경)

- 이현근 건축사 / 진영 건축사사무소 /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3가 1626-10 4층
- 장동석 건축사 / 다빈치 건축사사무소 /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3가 1648-3 3층

* 부고

- 김형민 건축사 / 대기 건축사사무소 1월 28일 (월) / 빙부상

News 광주·전남·전북 2월 지역축제 안내

- ▶ 12. 15 (토) ~ 02. 24 (일)까지
2013 광주 해피윈터페스티벌 시즌4
－ 광주 서구 김대중컨벤션센터
- ▶ 12. 21 (금) ~ 02. 15 (금)까지
꽃피는 미술시장 전－전북 전주시 서산갤러리
- ▶ 12. 25 (화) ~ 03. 31 (일)까지
벤산전－광주 북구 광주시립미술관
- ▶ 12. 28 (금) ~ 02. 28 (목)까지
이아남 전－광주 서구 광주시립미술관 상록전시관
- ▶ 01. 19 (토) ~ 02. 24 (일)까지
안 사우텍 사진 광주 특별전
2013－광주 서구 유스퀘어문화관 금호갤러리
- ▶ 02. 09 (토) ~ 02. 24 (일)까지
2013 최명희문학관 설·정월대보름맞이 행사
－ 전북 전주시 최명희문학관
- ▶ 02. 09 (토) ~ 02. 24 (일)까지
제17회 작은문화축전
－ 전북 전주시 국립전주박물관
- ▶ 02. 09 (토) ~ 02. 24 (일)까지
전라남도농업박물관 민속놀이 체험행사
－ 전남 영암군 전라남도농업박물관

법 / 령 / 정 / 보

주택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국토해양부공고 제2013-46호, 2013-01-25)

1. 개정이유

공동주택의 경미한 시설물 증축, 교체 및 철거행위는 입주인이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주택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1) 시행령 개정안

공동주택 단지내 상가(입주자 공유가 아닌 복리시설)의 비내력벽 철거 시 행위신고로 가능(안 제47조 제1항 별표 3제5호)

2) 시행규칙 개정안

가. 입주인의 생활편의 증대를 위하여 공동주택의 경미한 시설물 증축행위는 사용검사 받은 면적 등의 10% 범위 내에서 행위신고로 가능하도록 함(안 시행규칙 제20조 제2항)

나. 공동주택의 경미한 건축설비는 관할관청의 허가나 신고절차 없이 입주인이 자유롭게 교체 및 철거할 수 있도록 함(안 제20조 제1항)

주차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국토해양부령 제565호, 2013-01-25)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주차수급실태조사를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해 조사주기를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고, 주차장 사용자의 안전 및 에너지 절약을 위해 지하식 또는 건축물식 형태의 노외주차장 등의 조도(照度) 측정기준을 바닥으로부터 85센티미터 높이에서 바닥면으로 변경하며, 조도도 주차장 위치에 따라 세분하여 정하고, 부설주차장의 구조 및 설비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하는 8대 이하인 자주식 주차장의 범위를 지평식 주차장에서 지평식 주차장과 구조상 유사한 필로티식 주차장까지 확대하는 한편, 중형 기계식주차장 주차구획의 너비 기준을 5센티미터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건축물 에너지 온실가스 정보체계 운영규정 제정(안), 건축물 에너지 소비증명에 관한 기준 제정(안), 재활용 건축자재의 활용기준 개정(안) 입안예고(국토해양부공고 제2013-58호, 2013-01-25)

1. 개정이유

「녹색건축물 조성지원법」에서 하위규정에 위임한 건축물 에너지 정보체계의 구축·운영·관리 등에 관한 사항 및 건축물 에너지 소비증명의 시행을 위한 관련 규정의 제정과 근거 법령 변경에 따른 재활용 건축자재의 활용기준을 개정하고자 함

- 「녹색건축물 조성지원법」 제10조 제5항 및 녹색건축물 조성지원법 시행규칙 제4조 제5항에 근거
- 「녹색건축물 조성지원법」 제18조, 시행령 제12조, 시행규칙 제8조 제5항에 근거

2. 주요내용

가. 건축물 에너지 온실가스 정보체계 운영규정(제정)

- (자료수집 이용) 전산자료의 수집 방법 및 이용신청 절차, 이용승인 조건, 중앙행정기관의 심사 등
- (정보보호 및 제공) 개인정보 보호기준 및 안전관리 대책, 전산자료의 제공 및 공개
- (관리 및 감독) 전산자료의 이용자에 대한 지도·감독, 에너지 정보시스템의 위탁, 에너지 정보의 정정신청, 재검토 기한 등

나. 건축물 에너지 소비증명에 관한 기준(제정)

- (평가서 발급 등) 평가서의 내용, 평가서 발급대상, 발급기준, 제출 및 관리방법 등
- (발급기관 업무 등) 발급실적 보고, 정보보호, 평가서 발급
- (유효기간 등) 유효기간, 수수료, 재검토 기한 등

다. 재활용 건축자재의 활용기준(개정)

- (근거법 개정) 재활용 건축자재 활용과 관련된 근거법을 기존 「건축법」에서 「녹색건축물 조성지원법」으로 변경하고, 건축폐자재 활용기준을 재활용 건축자재의 활용기준으로 변경

조달청 지역제한입찰 세부처리기준 안내

조달청은 지역제한입찰의 검토기준인 <시설공사 및 기술용역 지역제한입찰 세부처리기준>을 마련하여 2013.2.1부터 시행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역제한입찰 세부처리기준 주요내용>

▶ (세부처리기준 취지)

지역제한입찰을 집행함에 있어 해당지역 중소기업체의 수주기회를 확보하고 입찰의 경쟁성도 확보할 수 있는 기준 마련, 시행

▶ (지방계약법 적용 시 지역업체 10인 미만인 경우)

- － 유효경쟁업체 2인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지역으로 제한
- － 유효경쟁업체 2인 미만인 경우에는 인접지역으로 확대

▶ (지역업체 10인 이상인 경우)

- － 유효경쟁업체 2인 미만인 경우에는 적격심사기준을 완화하여 해당 지역으로 제한

※ (종전)일반경쟁으로 집행

기타 자세한 사항은 법제처(<http://www.moleg.go.kr>) 또는 대한건축사협회(<http://www.kira.or.kr>) 법령정보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서석

광주건축사회 고문변호사 윤 춘 주
법무법인 서석 변호사

새로운 일을 추진할 때와
문서에 서명하기 전에
변호사와의 전화 한 통화로
많은 문제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 취업업무 •

공증, 특허, 상표, 건설, 의료, 행정, 파산

광주광역시 동구 지산동 715-2 법조타운 206호
전화 : 062-226-7400 팩스 : 062-225-5310
홈페이지 : nicelawyer.co.kr / 윤변호사.com

건축문화 사랑

2009년 11월 10일 창간

발행처 광주광역시건축사회
발행인 심상봉, 윤문곤, 이성엽
편집인 서재형
전담기자 광승국
편집위원 강필서, 신영은, 박신남, 정명환, 정관성, 강동영, 김미영, 이광영, 박상윤, 천경훈, 박종호, 양우현

등록번호 광주광역시 라00144
간별 월간
등록일자 2010-01-25
인쇄·제작 원일인쇄 T.062)228-7813
광고신청 T.062)521-0025



표 | 지 | 설 | 명

건축의 현재와 미래

건축문화 발전을 위한
각계 각층의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다.
무엇보다 한 목소리를 내어야하는
조직구성이 필요해 보인다.

건축문화 사랑

신문 발전기금을 모집합니다!

- ▶ 발전기금 : 1만원부터
- ▶ 후원방식 : 신헌 131-009-471898 (예금주 : 광주건축사회)

장 철 / 동일교역(주)	1,000,000원
윤재민 / (주)제이엠와이 건축사사무소	300,000원
조두상 / (주)플러스 건축사사무소	200,000원
윤춘주 / 법무법인 서석	100,000원

건축문화 사랑

원고모집

건축문화사랑에 게재할 원고를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독자사진/지역소식/동호회소식/책/수필/수필/작품노트/건축작품/독자만평/기타(기행문, 시, 문학작품, 미담, 학위 취득, 교수 임용, 인사이동 등 회원동정)

원고마감 : 매달 25일
문의 : 광주건축사회 (Tel : 062-521-0025)
E-mail : gkira@empal.com

- 1. 건축작품 및 기타를 제외한 모든 원고는 소정의 원고료를 지급.
- 2. 원고에는 작가의 사진과 사무소명, 직책 및 약력을 첨부.
- 3. 원고는 아래 한글, 명조체, 10포인트로 작성, 사진은 디지털파일로 제출.

노는 만큼 성공한다.

권진숙 주부
전라남도 순천시

소소한 일상을 창의적으로, 평범함을 통해 특별함으로 진부함을 통해서 새로움을 느끼는 설렘으로 바라보는 시각을 우린 가져야 한다. 그것을 추구해야한다. 그 방법은 무엇일까? ‘노는 만큼 성공한다’ 다소 튀는 머리스타일과 말투로 각종 언론매체에서 방송인으로 활약하고 있는 김정운 교수의 책 제목이다. 내가 가장 좋아하는 문장이기도 하다. 이 말처럼 과연 노는 만큼 성공할 수 있을까? 참 멋진 말이다. 하지만 끌리는 만큼 한편으로 강한 거부감을 느끼게 하는 강렬한 문장이기도 하다. 흔히 우리는 사회에서 한 일원으로, 조직 내의 한 직책으로 각자 하나의 역할을 맡으며 살아가고 있다. 막상 그 역할에서 나의 웃은 어떠한 것인가? 그다지 환영받지 못하는 나 자신의 초라함을 발견 할 수 있을 것이다.

상당수가 사회에서의 나의 위치에 대한 생각을 한번 짚 해봤을 것이다. 또한 많은 직책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점점 혼자라는 생각을 저버릴 순 없을 것이다. 급격한 경제 성장과 경쟁 사회 속에서 자신의 일에만 몰인 하는 것이 유일한 삶의 방법 이었고 그것이 자신과 가정 그리고 사회에 있어서 가장 바른 길이라고 믿으며 살아온것이 현재의 우리를 모습 일 것이다. 오로지 앞만 보고 달려온 우리들의 아버지세대나 그런 특수한 상황에서 그럴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이해 못하거나 비난 하는 것은 결코 아니다.

가끔은 너무 처절하고, 불쌍하기 그지없을 정도로 나를 조여가며, 심지어 나 자신을 바라보지 못할 때나 같은 일을 바라보고도 여유로움을 느끼지 못하는 것에 대한 안타까움이다. 아마 우린 가장 쉬우면서 가장하기 어려운 여유로움을 모르는 것이다.

또한 내 자신이 진정으로 잘할 수 있는지 무엇을 좋아하는지조차 모르고 있다. 이것을 먼저 찾아야 한다. 낮잠 자기, 내 아이 안아주기, 사랑하기, 이 단순하면서도 당연한 모든 것들이 행복이고 여유로움인데 그것조차 인지하지 못한다.

현재 나에게 인내와 노력만을 강요하지 말고 내안의 정서를 달래고 이해한다면 진정으로 여기서 말하는 ‘성공’이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미래를 위해 나 자신을 채찍질 하며 살아야가야 하는지, 당장 보이지 않는 미래가 아닌 현재의 나를 위해 살아 가야하는지 쉽지 않는 결정일 것이며 무엇이 우선순위라고 쉽게 판단 할 수는 없다.

하지만 이것 하나만은 분명하다. 우리가 지금 달려가는 것도 나의 미래와 현재의 만족, 목표, 즉 나 자신의 즐거움을 위함이라는 것이다.

즐겁게 살자 ~! 조금은 단순하게 나를 놓고 즐겨보자. “성공해서 행복한 것이 아니라, 행복해서 성공한 것이다” 사소한 재미를 찾아서 매일 나만의 축제 속에서 사는 나를 발견하자!!

범 칙 금

태완섭 사무국장
전라북도건축사회

아는 듯 모르는 듯

마누라 없이는 살아도

장화 없이는 못산다는

질퍽대는 황토 길을

아랑곳하지 않고 구둣발로 들어서고

눈 덮인 산길을

아이젠도 없이 오르다

미끄러지고, 부러지고 있다

짐승들이 닦아 놓은 산길을

세금도 안내고 드나들며

인간사로 포장을 하고 있다

술렁이는 양심과

북적대는 인파사이로

범칙금 고지서가 날아든다.

「영혼이 숨쉬는 유기적인 도시를 꿈꾸는 자」

사고와 진리에서 태어나는 도시
떼오도르 폴 김 지음/ 시대의 창 펴냄/ 2009년

김해란 주부
경기도



다양한 색과 미술 작품 보는 것을 좋아하다 보니 디자인에 관심이 가게 되었고 디자인에 관심을 가지다 보니 어느 새 집이라는 것을 던지지 바라보게 되었다. 우리나라에서는 결혼을 하면 대개는 월세, 전세에서 시작하여 집세 내는 격정과 잦은 이사의 번거로움, 안정된 아이들 교육 때문에 월급쟁이들은 1차적으로 보금자리 마련을 계획한다.

나를 비롯하여 주변의 지인들도 대부분 거액의 자금을 대출받아서 집을 마련한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지 않으면 주택구입이 하늘의 별 따기만큼 어렵기 때문이다. 물가는 치솟는데 아이들 양육하고 기본적인 생활을 하면서 목돈을 마련한 다음에 집을 사게 되면 그때는 집값이 천정부지로 올라있어서 내 집 마련은 모래 쌓기가 되어버리기 때문이다.

우리는 나들이를 가면서 아름다운 전원주택이나 갤러리가 있는 카페를 보게 되면 ‘아름답다’라는 미적인 관점에서만

보게 되고 정작 ‘집, 건축’에 대한 기본 철학은 생각할 틈이 없다. 그런데 이 책을 읽다보니 정치가, 행정가, 건축가 등 전문인과 더불어 일반 서민들도 집(집들이 모여 이룬 도시)에 대하여 오랜 세월 자리매김 되어있는 잘못된 사고를 인식만 하지 말고 올바른 관점으로 전환해야 될 필요성을 느끼게 되었다. 나는 이러한 관점에서 이 책을 소개하고 싶다.

저자는 서두에서 정부와 기업이 부동산 경제와 건설 경기를 구실로 집이 불로소득의 원천이 되게 하고 가난한 무주택자, 실업자, 노동자 그리고 젊은 세대들이 방황하게 만들고 있는데 주택정책을 역사적, 사회적 요인들이 융해되어 상호 유기적인 관계를 맺고 인간의 존엄성과 생존권을 보장하며 인간의 삶과 문화를 창조하는 숭고한 건설행위가 되도록 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첫 번째 장에서 하이데거의 집은 삶이라는 철학적 의미를 지닌 주거 공간이라는 정의를 빌려서 집은 삶의 역사, 문화를 담는 공간이란 사실을 이해하도록 가르쳐야 한다고 주장한다.

두 번째 장에서는 도시를 기능, 자본, 효율성, 외관만 중시하지 말고 도시의 모양과 기능적인 조화를 이루고 철학, 문화, 예술, 과학 등 여러 요소들이 복합적으로 표현되어 공공의 사회적 장소, 축제와 파티의 도시, 인류

역사를 보존하는 증거의 장소, 도시의 본질과 기능을 상징하는 역할이 되도록 해야 한다고 언급하고 있다.

세 번째 장에서는 도시의 미학적 기준에서 미래의 번영을 위해 현재의 삶을 고려하지 않은 도시를 형성하거나 미래 경제성장을 전제로 현재의 자연을 파괴하여 생태계를 오염시키는 건설정책은 용납되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한다.

마지막으로 도시의 사회학적 관점에서 조상의 영혼, 나의 어린 시절, 가정의 행복이 있는 집이 부를 획득하고 이익을 창출하는 획기적인 경제상품이 되어서 부익부빈익빈 현상을 부추기는 물건이 되어선 안되고 배타적이고 도덕성이 존재하여 누구나 존중된 인격을 가지고 자신의 가정을 완성하며 사회적 공동체 일원으로서 봉사하고 헌신할 수 있는 도시로 건설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요즘 주변에서 집을 한 채를 가졌든 여러 채를 가졌든 주택소유자는 집값이 너무 떨어졌다고 염려하고 무주택자는 전세 값이 1년 만에 너무 올라서 버겁다고 호소한다. 현재 우리 나라에서 살고 있는 우리는 ‘집’의 진정한 가치에 대해서 한번쯤 심사숙고 해봐야 되지 않나 싶다. ‘집’은 결코 재산증식의 도구가 아닌, 사람의 삶을 담고 내 가정의 행복이 창출되는 생산의 공간이니...



고향의 눈 오는 날

어릴 때 고향집 언저리에서 텅 빈 내 가슴에 채워지지 않는 무언가를 갈망하며...
올 겨울같이 눈도 많이 오고 춥기도 한 엄동설한에 문득문득 생각나는
마을 언저리가 이맘때면 생각이 나곤 합니다.

자신 장기중 / 자신 건축사사무소(전북)



광양 매화마을 매화...

연일 영화권의 강추위가 계속 된다고 한다...
꽃피는 봄이 온다는 입춘이 지나고...
맘은 이미 봄꽃놀이 하러 가고 있는데...

(주)연우 건축사사무소 조성진 촬영(전남)

2012년 건축사 GALLERY

2012년 한해 동안 독자광장 건축사 Gallery에 출품된 그림작품 전시



1

월출산의 풍경화
발두령 한편에 고즈넉이 들어앉은 빈터에서
풍경하나 품고있는 월출산이 반갑구나
우뚝 솟은 바위들도 빨강도 있고 노랑도 있다
가을이 마주치는 이파리가 쓸쓸하고 애잔하구나
월출산 그 모습 마음에 그려
그 속에서도 하나의 풍경입니다.
양동현 건축사 作
/ (주)건축사사무소 에이디그림(광주)



2

가을이야기
가을 하면 떠오르는 것은 색이지요.
온산을 벌겋게 달아오르듯 불타는 가을
그 색의 비밀을 보았습니다.
나뭇잎 사이사이 저마다의 색을 발하는
빛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보여지는 것이 모든 진실이 아니듯 보여지는
가을의 진실은 따로 있었습니다.
정태호 건축사 作
/ (주)건축사사무소 영일 필(광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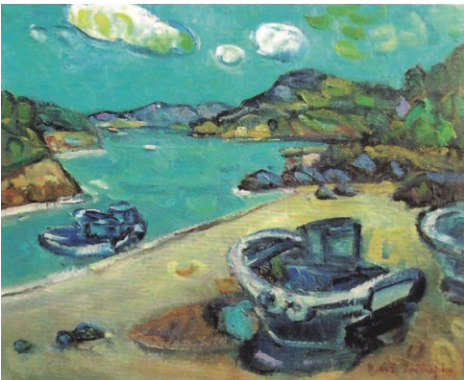
3

꿈
조그마한 캔버스 안에 덩그러니 한 채가 가득
거센 눈보라가 오면 금방 부수어질 것 같지만,
그래도 따스한 봄날을 기다리며,
복잡한 세상의 무게를 내려놓을 수 있게
수 백 년의 그루터기가 위로해 주는
안락한 휴식처에 마음을 담아본다.
김금진 건축사 作
/ (주)신하 건축사사무소(광주)



4

바닷가의 추억
여름날 해변가에
남겨진 추억을 그리며...
정원석 건축사 作
/ 디자인 건축사사무소(광주)



5

법성포의 봄 기운
작년에 풍어로 들썩이던 법성포
뒤편 돌아 백수에서 바로보니
고향같은 편안함이 느껴진다.
바다도 하늘도 봄 기운이 가득한데
먼 뱃길뒤 쉬는 배들이
엄마뚝에 안긴 아이처럼 자고 있다.
임정구 건축사 作
/ 씨에이그림 건축사사무소 정(광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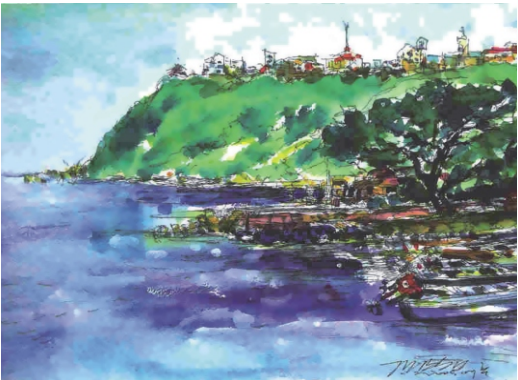
6

보길도의 바다
회원들과의 보길도 나들이는
참 아름다웠다.
배위에서의 소주 한잔은
광주에서의 모든 것들을
떨쳐 버릴 수 있었다.
그 시간이 그림다.
차은영 건축사 作
/ 건축사사무소 시명(광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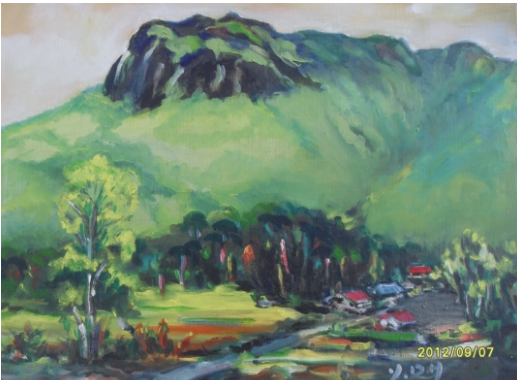
7

이서의 가을
하늘빛 푸르고 별빛 맑은 이서에 단풍까지 곱게 물든 날
그리운 사람이 함께 살고 싶다면 물레방아 집에 아직 그 약속이
쓸쓸히 남아 있을 것 같기에 이서 속으로 길을 떠난다.
떠나는 사람은 나인데 가슴가득 이서가 와 있는 걸 보면
홀로 남아 쓸쓸한 그 약속을 내게 전해주려 필경
가을 내내 이서가 나를 향해 걸어 온 것이 틀림없다.
신정철 건축사 作
/ (주)건축사사무소 에이디그림



8

“언덕이 보이는 포구”
늘 넉넉하게 우리를 맞아주는 바다
작은 포구 그늘에서 들썩 물먹은 붓을 들어
언덕을 오르내리고 해변을 돌아
어느샌가 캔버스 속 파란 바다와 하나가 된다.
선기택 건축사 作
/ (주)HS그룹 건축사사무소(광주)



9

추월산의 봄
가을을 만드려는 움트임
달빛 기다림의 침묵
추월산의 봄나래
속삭임 속에 명산은 연초록
양동현 건축사 作
/ (주)건축사사무소 에이디그림(광주)



10

사랑이란?
소주처럼
맑고,
양주처럼
진하며,
맥주처럼
풍부하고,
막걸리처럼
소박한것!

정원석 건축사 作
/ 디자인 건축사사무소(광주)



11

봄에는 꿈이 솟아오른다.
잔뜩 움추렸던 대지에 바람이 들어찬다.
어제와 다르게
오늘 나에게도 그 바람이 들어온다.
자꾸 밖으로 내 몰아가던 그 바람은
어느덧 꿈으로 바뀌어 있다.
김주연 건축사 作
/ 주신 건축사사무소(광주)



12

함박눈
무등산으로부터 물고온 함박눈이
내가 사는 동네언덕에도 내렸습니다.
함박눈 평평 쏟아지던 날
고향마을 동산과 논두렁을 그냥 들떠 뛰어다녔던
그때와 지금의 마음을 담아보았습니다.
김선채 건축사 作
/ 뉴텍 건축사사무소(광주)



W호텔 내부 벽체

내부 천장

역천동 주민센터



외국사례

서울사무소 : Tel. 02-576-5234